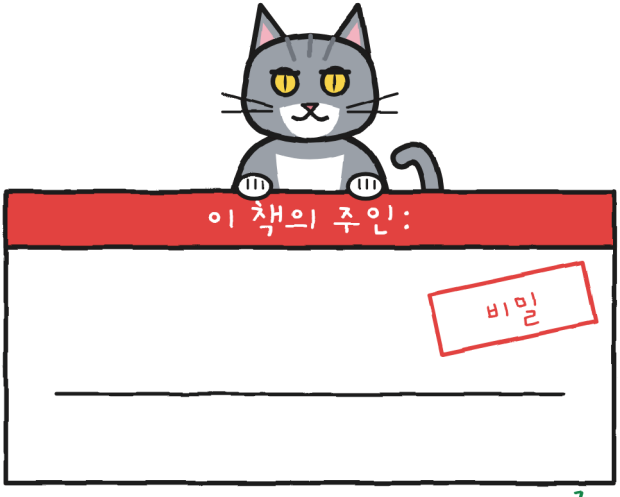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이걸 주웠다면, 천둥이 치기 전에는 열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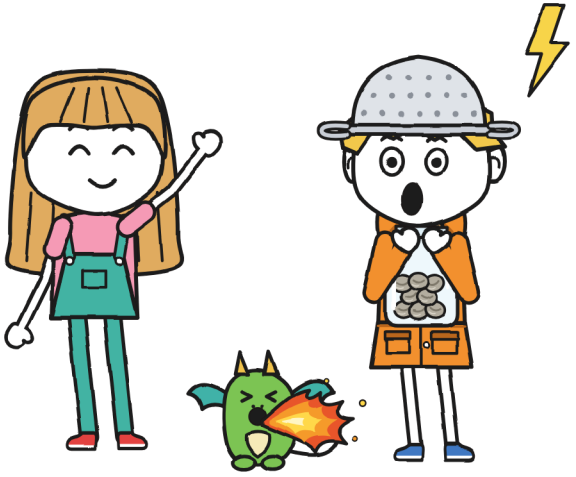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너는 따라 하지 마. 몇 쪽에 걸쳐 이어지면 '여기부터 화 여기까지'라고 적혀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마지막 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ui Eriksson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시리즈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이 택배는 문다’.

글과 그림: Lui Eriksson

한국어판: LinguAula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초판: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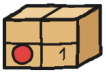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글꼴: Gowun Dodum, Gaegu, Nanum Pen Script, Nanum Gothic Coding, Andika, Patrick Hand, Caveat, Courier Prime (SIL OFL 라이선스).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천둥은 없다. —J.



제1장

폭풍 사냥꾼

맞은편 가게에는 덜덜 떠는 택배가 하나 있다.

지난 토요일에 딱 한 번 움직였다. 그때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가늘고 끊이지 않는 떨림이다. 동물병원 대기실에 앉은 작은 강아지가 떠는 것 같다. 이레째 그러고 있다. 날마다 조금씩 더 심해진다.

그리고 나한테는 새 공책이 있다.

공책 1권은 다 썼다.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라 아줌마가 이걸 줬다. 표지는 파란색이고, 한쪽 모서리에는 가게의 빨간 도장이 찍혀 있다. 첫 장에는 제목을 썼는데,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들어갔다:

배달 공책 2 • 주인: 구니. 공식.

공식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공식적으로. —J.

마라 아줌마는 공식 공책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한다. 두고 보자. 이 공책에는 벌써 그림이 하나 있다.

지난 공책에 대해 알아 둘 게 있다. 지지난 토요일에 훌리타(초록색 메모를 쓰는 아이)와 나는 밤에 널다리를 건너, 어른 한 명 없이, 몇 년 동안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알을 배달했다. 그 알이 지금은 부스러기, 내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하는 아기 용이다. 가게의 마녀 마라 아줌마는 우리에게 벌을 주었다. 토요일마다 10시에 가게에 나오는 것. 나는 이 동네에 새로 온 아이고, 내 물건은 아직 거의 다 상자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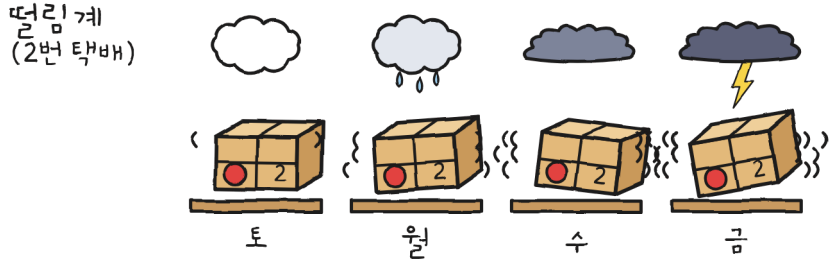
떨고 있는 건 2번 택배다. 돌아온 택배를 두는 선반에 놓여 있고, 나는 그 라벨을 외우고 있다. 이번 주에는 날마다 오후에 읽었다. 선 채로, 건드리지 않고, 마라 아줌마가 나를 못 본 척하는 동안:

- 2번 · 파손 주의.
- 받는 곳: 플로라, 운하길 9번지.
- 요청 사항: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 보내는 사람: R.

둘레에는 '반송' 도장이 스물세 개 찍혀 있다. 혹시 떨어진 게 있을까 봐 두 번 세어 보았다.

돌아온 택배는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택배다. 받는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서명하지 않으면, 해 뜰 때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오리 떼처럼 줄을 지어서. 이제 열아홉 개가 남았다. 벽에 초록색으로, 훌리타의 글씨로 적혀 있는데, 훌리타가 초록색으로 쓴 건 지워지지 않는다. 택배는 전부 같은 사람이 보낸다. R. 그 사람에 대해 알려진 거라곤 글씨를 아주 못 쓴다는 것뿐이다.

나는 날마다 오후에 얼마나 떠는지, 그리고 날씨가 어떤지 적었다. 그렇게 2번 택배 떨림계가 나왔다. 금요일에는 구름 속에 번개가 들어 있었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야. 폭풍이 오니까 떠는 거야. 토요일 저녁 6시에. 일기예보를 여섯 번이나 확인했어. —J.

나는 메모를 두 번 읽었다. 두 번째에는 6시라는 부분만.



토요일 10시,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라색 모자를 쓰고, 꺼진 양초 냄새가 나는 불꽃을 튀기는 도장을 든 채. 2번 택배는 두 손에 들려 있었다. 선반이 아니라 손에. 도장 옆에는 아직 고무 개구리가 있었다. 누구 것도 아니게 된 뒤로 내 것이 된 개구리다. 그리고 번개배송 배달원 토뇨는 헬멧을 쓴 채 서 있었다. 토요일은 토뇨의 벌이기도 한데, 토뇨는 벌도 배달처럼 받는다. 시간을 딱 맞춰서, 아무것도 벗지 않고.

"스물세 번 내가 직접 가져갔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런데 폭풍이 칠 때는 한 번도 없었지."

마라 아줌마는 엄지로 라벨을 쓸었다. 나는 점점 잿빛이 되는 진열창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배달은 여느 때와 다를 것이었다.

"이건 말이야." 마라 아줌마가 선언했다. "너희가 배달해. 오늘 오후에."

훌리타가 '남은 택배 19' 팻말에 닿을 만큼 폴짝 뛰었고, 내려앉았을 때는 벌써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뛰지 않았다. 두 마디, '오늘 오후'와 한 시각, 6시가 남았는데, 택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라 아줌마는 조건을 세 가지 걸고 손가락으로 꼽았다:

1. 5시에 출발해. 폭풍이 오기 전에.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플로라 아줌마 집에 있어.
2. 너희 가족은 이미 알고 있어. 플로라 아줌마도.
3. 규칙은 라벨에 쓰인 그대로야. 천둥 치기 전에는 열지 마. 그리고 머리 위에서 치는 천둥이어야 해. 멀리서 치는 건 안 돼.

나는 속임수를 알아챘다. 베라 아줌마가 우리를 야단칠 때 한 말과 거의 같은 규칙이었다. 베라 아줌마는 부스러기의 주인이다. 다만 야단을 친 뒤가 아니라 앞서서 말한 것뿐이다. 마라 아줌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다 알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는 꾸중이 택배보다 먼저 도착한다.

"같이 안 가요?" 훌리타가 물었다.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마라 아줌마는 이렇게 대답하고, 진열창 너머로 점점 잿빛이 되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계산대 끝에는 담요 한 장이 개켜져 있었고, 스키 귀마개와 냄비가 하나 있었다. 나는 다 보았다. 그리고 택배를 바라보았다.

그때 훌리타가 나를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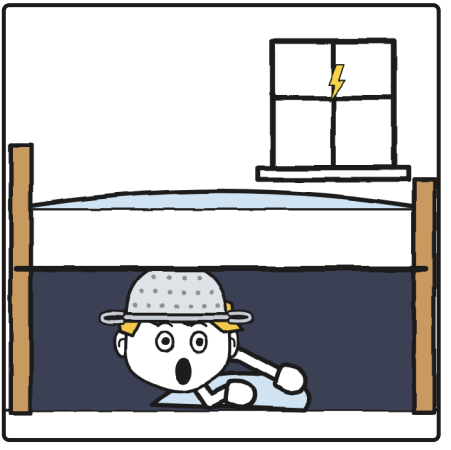
"넌 폭풍 좋아해?"

훌리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나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

"엄청 좋아해. 예전 동네에서는 전문 폭풍 사냥꾼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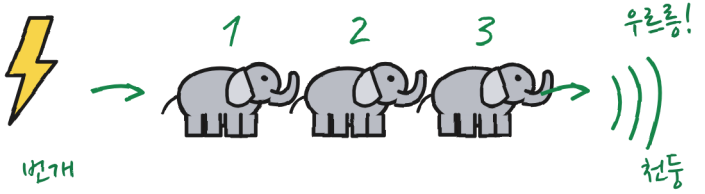
지난 공책에서는 거짓말이 돌아오는 데 하루와 하룻밤이 걸렸다. 이번에는 길을 줄여 주기로 했다. 그날 아침에 바로 거짓말을 그리고, 옆칸에는 진실을 그렸다.





체는 부엌에서 쓰던 철제 체였고,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었다. 번개를 막아 주지는 못했다. 나는 머리에 뭘 쓰고 있으면 도움이 됐다. 지금 그 체는 이삿짐 상자 어딘가에 들어 있을 텐데, 엄마가 일주일째 찾고 있는 가위 옆일 것이다.

훌리타가 내 공책에다, 허락도 없이, 초록색으로 폭풍 세는 법을 알려 주었다.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코끼리 셋...

코끼리 7마리 = 7초

코끼리 3마리 = 3킬로미터 (대충)

코끼리 0마리 = 머리 위!

↑ 이게 라벨에 쓰인 천둥이야.
멀리서 치는 천둥은 택배를 못 열어.

코끼리가 더 많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안전한 곳으로!

번개가 친 순간부터 천둥이 칠 때까지를 코끼리로 센다. '코끼리 하나'는 대략 1초이고, 셋이면 1킬로미터다. 그렇게 하면 그 번개가 대충 얼마나 먼

곳에 쳤는지 알 수 있다. 다음 번개가 어디에 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셈이 알려 주지 않는 건 언제 나가도 되는지인데, 훌리타 말로는 그건 그림도 없는 다른 규칙이다.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

속으로 세어 보았더니 엄청나게 빠른 코끼리만 나왔다. 쓸모없는 코끼리다. 나는 아무것도 셀 필요가 없었다. 나는 폭풍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적어 두었다.

토뇨는 내 어깨 너머로 라벨을 읽었다. 자기 것이 아닌 건 뭐든 그렇게 읽는다.

"번개배송은 폭풍이 칠 때는 배달 안 해." 토뇨는 이렇게 말하며 노란 가방의 작은 글씨를 보여 주었다. 번개배송 ·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그리고 훌리타의 돋보기로 보면 별표가 하나 있었다. *폭풍이 치면 제외.

"아직 폭풍은 안 쳤잖아." 훌리타가 말했다.

토뇨는 작은 글씨를 다시 훑어보았다. '아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서 토뇨도 우리와 같이 갔다. 토뇨는 코끼리를 한꺼번에 센다. "하나둘셋!" 하고, 배달 한 건 처리하듯이. 토뇨에 따르면 모든 폭풍은 1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용기인지 코끼리가 모자란 건지 나는 모르겠다.



5시에 나는 비옷을 가지러 우리 집으로 건너갔다. 훌리타는 현관에서 기다렸다. 엄마는 비옷을 손에 늘어뜨린 채 집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에게는 주황색에 대한 이론이 있다. 멀리서도 눈에 띈다는 것이다. 엄마가 어디서 볼 생각인지는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주황색 입어." 엄마가 말했다. "정말 갈 거니? 너 천둥이 칠 때면..."

"엄마, 다녀올게!"

나는 계단을 두 칸씩 뛰어 내려갔다. 현관의 메아리 덕분에 엄마 말의 절반쯤은 가는 길에 사라질 거라고 계산했다. 사라지지 않았다. 훌리타가 아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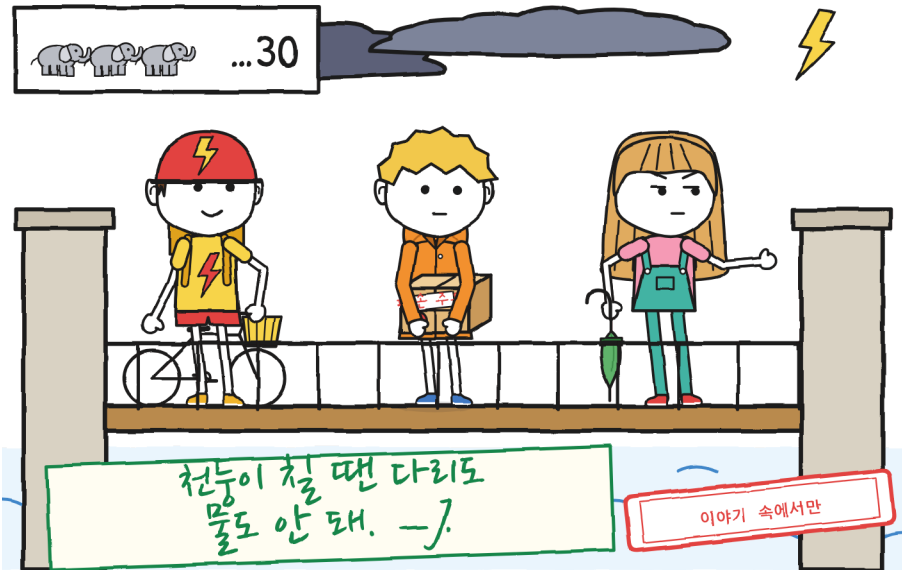
넌 천둥이 칠 때면...'뭐?! —J.

우리는 큰 다리를 건넜고, 하늘은 점점 더 새까매졌다. 밤에는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낮에는 모두가 건너는 다리다. 그 시간에 건너는 건 우리뿐이었고,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가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다. 폭풍이 올 때는 그쪽이 맞는 방향이다. 나는 2번 택배를 두 손으로, 아주 반듯하게 들고 있었다. 토뇨는 자전거를 밀고 갔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닌데 번개배송이 그렇게 느린 건 처음 보았다.

다리 한가운데를 지날 때 훌리타는 물에게 그 무뚝뚝한 인사를 했다. 손만 짧게 들고, 웃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하듯이. 널다리에서 보낸 그날 밤 이후로 그렇게 한다. 그게 둘 사이의 약속인 것 같다. 훌리타가 인사하면 물이 지나가게 해 주는.

아주 멀리서 하늘이 번쩍했다.

구름 뒤의 깜빡임이었다. 소리는 없었다. 누가 너 없는 방의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 같았다. 훌리타는 우뚝 멈춰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코끼리를 셌다. 아무 소리도 들리기 전에 서른까지 셌다. 나도 속으로 같이 셌다, 나의 엄청 빠른 코끼리들로. 마흔둘이 나왔다.



우르릉.

"10킬로미터쯤 떨어진 데야." 훌리타가 가늠했다.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6시에 온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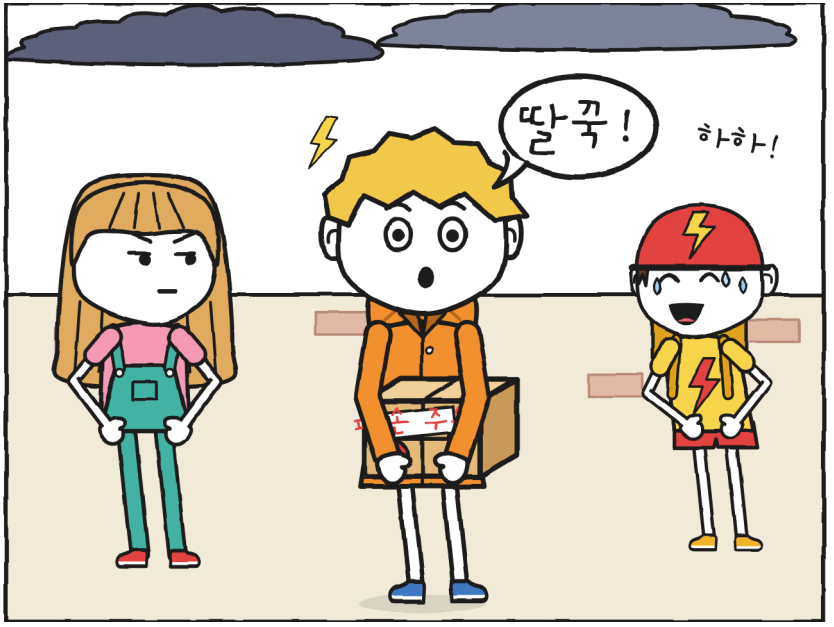
"천둥이 쳤다!" 토뇨가 소리쳤다. "이제 열어도 돼?"

"택배를 여는 천둥은 저게 아니야." 훌리타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1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잖아. 라벨에 쓰인 천둥은 머리 위에서 치는 거, 코끼리 0마리야. 하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안전한 데로! 뛰어!"

나는 운하길까지 달렸다.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우르릉도, 6시 이야기도.

"방금 딸꾹질이야?" 훌리타가 걸음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딸꾹!"



토뇨는 핸들 위로 몸을 접고 얼마나 웃었는지 자전거가 옆으로 휘청했다. 훌리타는 웃지 않았다. 쓰이지 않은 걸 읽을 때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천둥 한 번에 딸꾹질 한 번. 어릴 때부터 그랬다. 폭풍이 멀리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난다. 머리 위에 있으면 또 하나가, 또 하나가 3초마다 폭풍이 갈 때까지 이어진다. 무서운 게 아니다. 내 몸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하는 일이다. 자라는 것이나 재채기처럼. 그리고 자라는 것처럼, 아무 표정이나 지어 본다고 멈추지 않는다. 온갖 표정을 다 해 봤으니 안다.

그걸 무서운 거라고 해. —J.

운하길에서 빨강 머리 베라 아줌마가 벌써 용의 집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네 문 바로 옆이다. 품에는 부스러기가 안겨

있었다. 부스러기는 나를 보자마자 내 얼굴을 했다. 늘 그런다. 나를 1초 쳐다보고, 내가 어떤 얼굴인지 확인하고, 그 얼굴을 한다.

나는 2번 택배를 토뇨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고 두 팔을 벌렸다.

"부스러기는 이번이 첫 폭풍이야." 베라 아줌마가 말하며 부스러기를 내 품에 안겨 주었다. "구니, 부스러기는 네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단다. 네가 느끼는 것도. 그러니 무서워하면 잡아당기지 마. 꽉 붙잡으니까. 폭풍이 지나가면 플로라네 마당 담장을 세 번 두드리렴. 내가 데리러 가마."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저는 폭풍이 엄청 좋거든요."

나는 가슴을 내밀며 말했고, 내 품의 부스러기도 똑같이 가슴을 내밀었다. 목을 쭉 빼고. 폭풍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의 살아 있는 그림이었다, 두 가지 크기로. 베라 아줌마는 같은 얼굴로 포개져 있는 우리 둘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라 아줌마는 필요할 때를 위해 말을 아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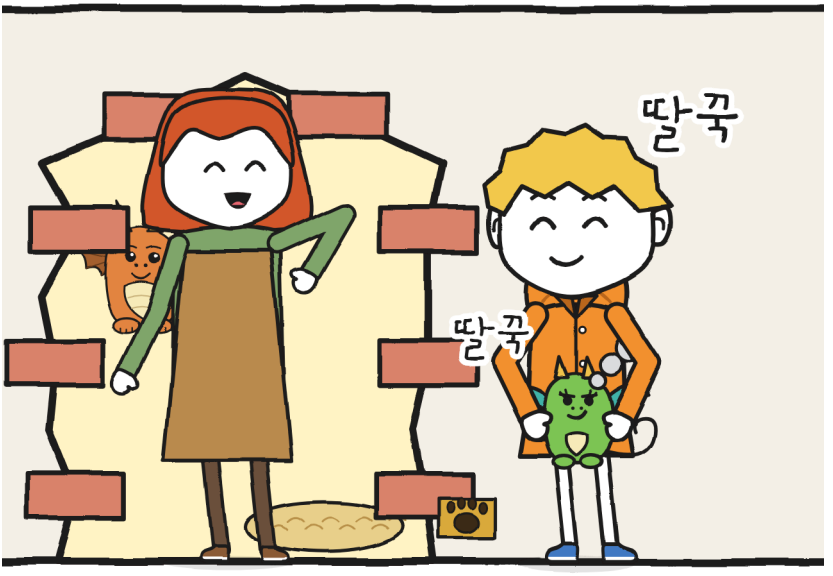
멀리서 천둥이 쳤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났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렴." 베라 아줌마가 잘라 말하고 우리를 플로라 아줌마네 문 쪽으로 떠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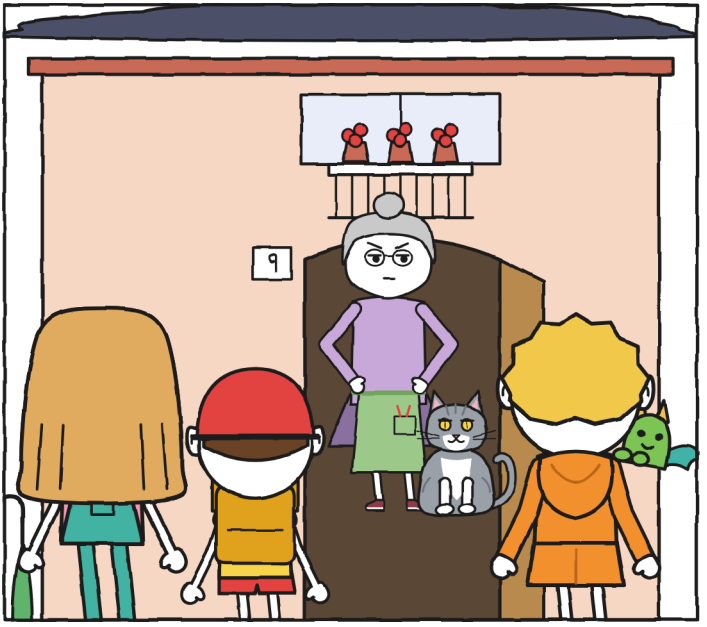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네 집은 제라늄 집이다. 지지난 토요일에 한 아주머니가 물뿌리개를 허공에 든 채 우리를 내려다보던 발코니의 바로 그 제라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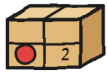
아줌마는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회색 쪽 머리에 안경을 쓴 아주머니였는데, 주머니가 잔뜩 달린 초록색 정원사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발 사이에는 가슴이 하얀 회색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서 자기

것이 아닌 택배를 보듯 우리를 쳐다보았다. 아줌마는 상자를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부스러기를 보았다. 그 순서로, 하나하나에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얼마 되지 않았다.



“베라네 아기 용이구나. 내 고사리를 그슬리지 않게 해 다오.” 아줌마가 말했다. “들어오렴, 비가 온단다. 그런데 미리 말해 두는데, 난 돌멩이에는 서명 안 해.”


๑



제2장

천둥!

플로라 아줌마네 부엌은 식물로 가득하다. 식탁에도, 바닥에도, 천장에도 매달려 있다. 식물들 사이로 좁은 통로가 나 있어서, 다닐 줄 알아야 지나갈 수 있다. 부스러기가 그슬리면 안 되는 고사리들이 하필 부스러기의 코높이에 있었다.

안쪽 끝에는 유리문이 온실로 이어지고, 뒤쪽의 나무문은 위쪽에 유리가, 아래쪽에 고양이 문이 달려 마당으로 이어진다. 유리 너머로 판석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젖은 흙냄새가 났다. 공원에서는 맡아 봤어도 부엌에서는 처음 맡는 냄새였다.

온실 유리에는 빗방울이 그려져 있었다. 하나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가 그걸 앞질렀다.

"R.이 만든 마법 유리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내가 원할 때만 비가 들어오지. 번개는 절대 안 들어오고. 소리는 늘 들어와. 어쩌겠니."

나는 그걸 R.의 카드에 적으려고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 R.은 마법 유리를 만들 줄 알면서, 병 하나를 배달하는 데는 스물세 번이나 실패했다.

냉장고에는 자석이 사진 한 장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싱크대 옆 못에는, 프라이팬과 말린 허브 다발 사이에,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철제 체가 걸려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식물보다 먼저 그게 보였다. 일주일째 엉뚱한 상자만 뒤지며 찾던 물건은 누구든 단번에 알아보는 법이다.

토뇨는 비 때문에 자전거를 복도에 들여놓고 그 곁, 부엌 문간에 몸을 반쯤 들인 채 서 있었다. 토뇨는 자기 것이 아닌 곳에 그렇게 들어간다. 고양이가 다리 사이로 지나가자 토뇨는 길을 터 주려고 필요 이상으로 비켜섰다. 나는 자전거를 스칠까 봐 그러는 줄 알았다.

플로라 아줌마는 상자를 식탁에 놓고, 화분 두 개를 팔꿈치로 밀어내고, 묻지도 않고 열었다. 묻지도 않고, 라벨도 읽지 않고. 여러 번 열어 본 상자의 골판지가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는 손이었다. 안에는 짚 사이에 코르크 마개를 한 유리병이 있었고, 병 속에는 회색 알갱이 여덟 개가 들어 있었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훌리타가 소리쳤다.

훌리타는 손가락으로 라벨을 가리켰다. 마라 아줌마의 세 번째 조건은 아주머니가 상자 덮개를 들어 올리는 시간만큼밖에 가지 못했다.

"오늘 연 건 상자지, 병이 아니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안에 든 건 이미 알고 있단다. R.이 초롱꽃을 약속해 놓고는 돌멩이를 보내지."

오래된 푸념 같은 소리였다.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때가 되어서 하는 푸념. 나는 병을 보았다. 알갱이들은 회색이고 매끈했고, 작은 호두 같았고, 돌멩이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만히 있었다. 돌멩이가 아니라고 말할 자신은 나에게 없었다. 공책의 병 옆에 화살표를 하나 그리고 '돌멩이?'라고 썼다. 누군가 초록색으로 다른 화살표를 덧붙였다: '초롱꽃?'

"초롱꽃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내가 아는 초롱은 종이로 만든 알록달록한 것으로, 축제 때 두 발코니 사이에 줄로 걸어 두었고, 첫비가 올 때까지만 갔다. 하지만 누가 돌멩이에 도장을 찍어 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번개배송에서는 돌멩이를 킬로 단위로 받아요." 토뇨가 문간에서 말했다.

아무도 토뇨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토뇨도 마찬가지였다.

플로라 아줌마는 냉장고로 가서 자석에서 사진을 떼어 내 우리 앞 식탁, 병 옆에 놓았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밤의 운하 산책로, 낮고 동그란 작은 불빛들이 물가에 한 줄로, 하나씩 하나씩, 널다리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가로등이

아니었다. 불빛은 땅에서 솟아 나와 있었다. 누가 전구를 심어 놓은 것처럼. 앞쪽에는 뒷모습의 두 사람이 뭔가를 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쪽 머리였고, 그 옆에는 어찌나 큰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밀짚모자가 있었다. 나는 모자에 대해 묻지 않았다. 플로라 아줌마도 모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침묵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었다.

"번개의 빛을 품었다가 밤새 밝혀 주는 식물이란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씨앗은 R.이 가져왔어, 이미 깨어난 걸로, 폭풍이 치는 밤에. 나는 흙을 대 줬고. 잠든 건 한 번도 못 봤어. 초롱꽃은 하나둘 꺼졌고, R.은 다시는 오지 않았단다. 이제는 이 병을 보내지."

플로라 아줌마는 사진을 냉장고에 다시 붙였다. 삐뚤어졌다. 손가락으로 바로잡고는 잠깐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래서 운하가 그렇게 어두웠던 것이다. 널다리의 불이 꺼졌는데 아무도 다시 켜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다.

무서웠지. 난 어둠 속에서 건넜는걸. —J.

훌리타는 냉장고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 메모를 썼다. 널다리는 지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건넌, 운하 위에 걸친 널빤지다. 훌리타는 뒤로 걸었고, 나는 어디를 밟을지 말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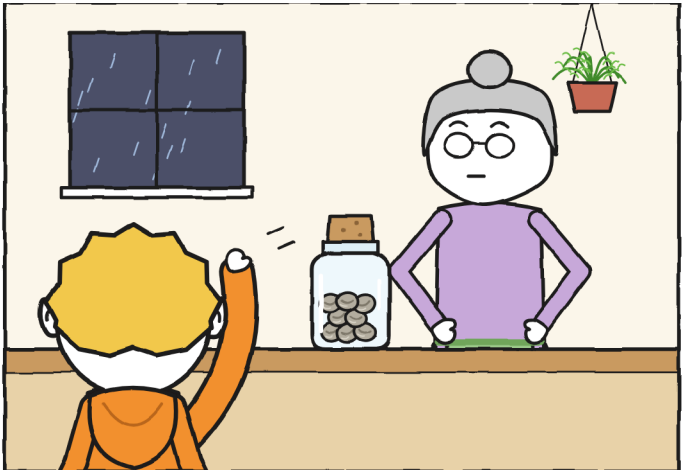
"R.은 약속은 지켜."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늦게라도 지키지. 이번엔 착각했나 보구나."

나는 두 마디를 따로 카드에 적었다. 점점 길어지는 목록을 모아 두는 카드, R.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초상화 자리에는 물음표가 그려져 있다. 줄은 두 개였고, 둘 다 공책 1권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라 아줌마 말로는

글씨를 아주 못 쓴다는 것, 그리고 R.의 이니셜을 읽을 때의 베라 아줌마 얼굴. 마법 유리 이야기까지 해서 그날 오후에 세 줄이 더 늘었고, 초상화는 그대로였다.

"그럼 천둥이 친 뒤에 열어 본 적은 있어요?" 내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손을 내렸다. 질문하려고 왜 손을 들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난 누구도 안 기다려." 아줌마가 말했다. "천둥이라도."

훌리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걸 알아채고 입을 다물었다.



플로라 아줌마의 고양이 이름은 천둥이다. 파란 밥그릇에 흰 글씨로 적혀 있다. 고양이 문 옆에 놓인 그릇이다. 나는 그걸 공책에 베꼈다. 그릇 그림과 함께, 굵은 글씨로. 나중에 중요해지니까: 천둥. 나는 나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건 뭐든 이름을 적어 둔다. 이빨 달린 택배 덕분에 배운 버릇이다. 천둥은 비구름처럼 회색이고, 가슴은 하얗고, 눈은 노랗다. 냉장고 옆에 누우면 어찌나 낮고 끊임없이 그르렁거리는지, 아직 딸꾹질이 나지 않는 멀리서 치는 천둥소리 같다.

폭풍을 기다리는 동안 부엌에서는 온갖 일이 일어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훌리타는 병 옆 식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똑, 똑, 똑. 일기예보를 여섯 번 확인하고 이제는 그냥 시작되기만 바라는 사람의 박자로. 플로라 아줌마는 과자 통을 열어 가운데 놓고는 '드세요' 소리는 하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토뇨는 그 와중에도 헬멧을 벗지 않은 채 과자를 물고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천둥이 쳤다. 우르릉, 천둥이라고 하기도 힘든 소리였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고, 짧고 작은 불꽃이 토뇨의 과자 앞을 스쳐 지나가 노릇노릇하게 구워 놓았다. 토뇨는 과자를 보고, 냄새를 맡고, 그래도 먹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 둔 물 양동이를 부스러기 옆 바닥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자 그때까지 우리가 없는 척하던 천둥이 부스러기를 보더니 등 털이 전부 곤두서서 꼬리를 부풀린 채 부스러기 앞에 버티고 섰다. 부스러기는 내 발 뒤로 숨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훌리타 뒤로 숨었다. 우리는 한 줄이 되었다. 고양이 한 마리, 아기 용 한 마리, 남자아이 하나, 그리고 식탁에 손가락을 올린 채 꿈쩍도 하지 않는 여자아이 하나.

천둥에서 제일 나쁜 건 기다리는 거야. —J.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문이 칠판 색으로 변해 가는 데서 알 수 있었고, 병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때까지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던

알갱이들이 유리에 부딪혀 달그락거리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소리였는데,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점점 더 세게. 병 속에서도 세고 있는 것처럼. 돌멩이는 세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플로라 아줌마가 이미 안경 너머로 나를 한 번 쳐다봤으니까.

훌리타는 번개가 칠 때마다 작은 소리로 셌다: '코끼리 열두 마리.' '아홉 마리.'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줄어들 때마다 식탁 밑에서 훌리타의 발이 더 움직였고, 아무 박자도 아닌 박자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게 다 보였다. 바닥에 구멍 나겠다고 말했더니 세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훌리타한테 발이 있다는 걸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때 부스러기가 작은 불꽃을 또 내뿜었다. 딸꾹질 없이, 순전히 초조해서. 한 뼘 앞에 있던 천둥이 고양이 문으로 쏜살같이 마당으로, 빗속으로 튀어 나갔다. 뚜껑 닫히는 소리를 내며: 딸깍. 플로라 아줌마는 뒷문을 홱 열고 문턱에서 소리쳐 천둥을 불렀다. 온 목소리로. 아줌마의 목소리는 크다:

"천둥아아아!"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훌리타의 손은 외침 전에 이미 마개 위에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훌리타가 병을 열었다.

뽕!

작고 동그란 코르크 소리였고,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부엌에서 반 초 동안 다른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으니까. 훌리타는 규칙을 글자 그대로 지켰다는 얼굴로 마개를 들어 올렸다.

"천둥이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천둥은 치지 않았다. 플로라 아줌마가 소리친 거였다. 천둥은 고양이다.

그런데 나는 딸꾹질을 했다. 천둥이 쳐서가 아니라, 누가 2미터 앞에서 '천둥'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내 몸은 구별을 못 한다. 부스러기는 불꽃과 함께 딸꾹질을 했고, 토뇨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한발 늦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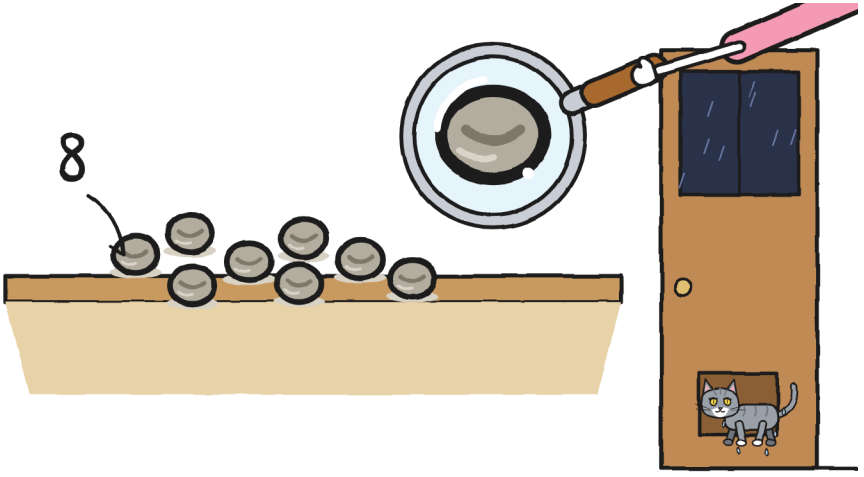
고양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내가 그릇 그림 옆에, 흰 글씨 그대로, 분명하게 베껴 두었는데.

그 쪽은 나중에 읽었어. —J.

병 속에는 회색 알갱이 여덟 개뿐이었다. 차갑고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튀어 오르지 않았고, 달그락 소리도 나지 않았다. 훌리타는 한 번에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알갱이들을 조심스럽게 식탁에 쏟고 멜빵바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냈다. 나는 손가락으로 세어 보았다. 여덟.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하는 일이다. 세기.

"줄이 하나씩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감은 눈 같아."

나는 돋보기를 빌려 들여다보았다. 알갱이마다 아주 가늘고 휘어진 줄이 있었다. 눈꺼풀 같았다.



천둥이 혼자 고양이 문으로 돌아왔다. 흠뻑 젖어, 털이 착 달라붙어 크기가 절반이 된 채로, 이미 가득 찬 부스러기의 양동이 바로 위에서 몸을 털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뒷문을 닫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식탁을 바라보았다.

"돌멩이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누가 천둥이 치기 전에 병을 열었지."

말하면서 훌리타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훌리타는 티셔츠 색깔, 분홍색이 되어서 돋보기를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천천히 넣으면 아무것도 열지 않은 셈이 된다는 듯이.

나는 식물을 잘 모른다. 솜 위에 렌틸콩을 키운 적이 있는데 이사를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플로라 아줌마가 '잠든 건 한 번도 못 봤어'라고 했고, 나는 그 감긴 작은 줄들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돌멩이가 아니라 씨앗이에요. 그래서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어쩌면 천둥이 깨워 줄지도 몰라요. 유리창이 덜덜 떨릴 만큼 큰 천둥이요.”

잠든 씨앗은 계획을 품은 돌멩이다.

플로라 아줌마는 도착한 뒤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알갱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씨앗이라면 증명해 보라지.”

밖은 벌써 거의 밤이었다. 6시였다. 훌리타가 여섯 번이나 확인한 그 시각.



번개가 모든 걸 하얗게 만들었다.

경고도 없었다. 한순간 전까지 부엌은 식물과 냉장고와 젖은 고양이가 있는 부엌이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부엌을 그린 흑백 그림이 되었다. 잎 하나하나가 오려 낸 듯하고, 우리 모두의 그림자가 벽에 붙어 있고, 창문은 한 장의 빛으로 변해 있었다. 훌리타는 세려고 입을 벌렸다가 ‘코끼리 하...’까지만 말할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진짜가 왔다.

천둥이 번개와 동시에 쳤다. 폭풍이 머리 위에 있었다. 소리가 아니라 떠밀림이었다. 식탁과 컵과 유리창이 떨렸고, 코끼리 도표에는 나오지 않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떨렸다. 코끼리 0마리. 바로 위.

그리고 불이 나갔다.



완전히 나갔다. 윙윙대던 냉장고가 멈추는 딸깍 소리와 함께, 부엌은 닫힌 상자 속처럼 새까맣게 되었다. 있는 거라곤 눈뿐이었다. 너무 크게 뜨여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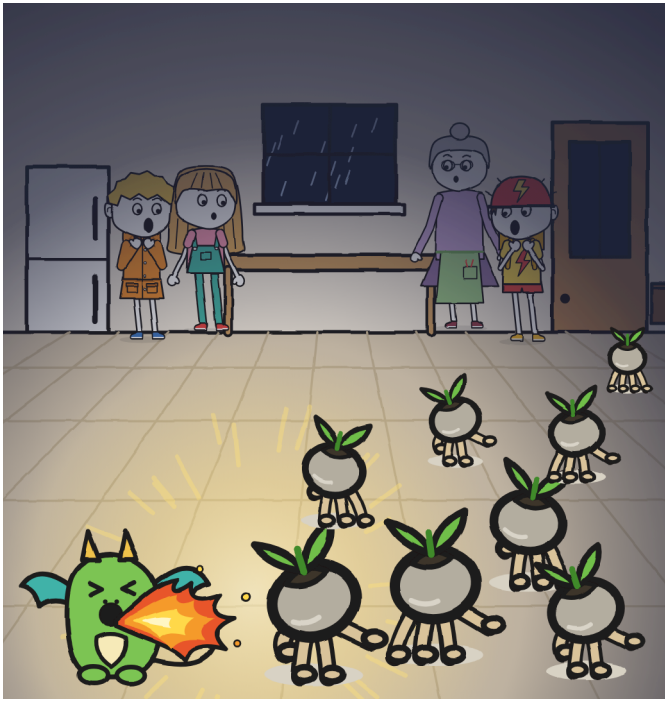
게 느껴지는 내 눈, 다른 사람들의 눈, 그리고 내 장화에 붙은 노란 눈 두 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들렸고, 아주 아래쪽에서 작고 빠른 숨소리가 내 숨의 박자에 맞춰 들려왔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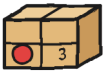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고, 불꽃이 확 뿜어져 나왔다.

1초 동안 부엌이 통째로 보였다.

식탁이 비어 있었다.



돌멩이에 다리가 달려 있었다.



제3장

안 보면 움직인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빗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바깥의 비는 내리는 소리였다. 이 비는 바닥을 달리고 있었다.

번개.

씨앗들은 더 멀리 가 있었다. 가만히, 네 개의 작은 다리와 두 장의 잎을 단 채로. 하나는 다리 하나를 허공에 든 채였다. 엄마가 누가 뭘 만졌느냐고 물을 때의 내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다시 어둠: 똑, 똑, 똑.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다. 불꽃이 씨앗 세 개를 걸음 한가운데서 붙잡았다. 나머지는 계속 달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야. 씨앗이랑. —J.

플로라 아줌마가 손전등을 켰다. 씨앗 하나를 비추자 그 씨앗이 꼼짝 못하고 멈췄다. 다른 씨앗을 비추자, 첫 번째 씨앗이 달아났다.



“씨앗이야! 깨어 있어!”

화난 목소리를 내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럼 도망 못 가게 좀 도와주렴.”

훌리타가 몸을 숙였다. 한 손에는 아직 마개가 있었다. 마개를 멜빵바지에 넣고 다른 손을 씨앗 앞에서 쫙 펼쳤다.

손가락 하나 차이로 놓쳤다.

다음 번개에 우리는 씨앗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았다. 전부 고양이 문이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커다란 화분을 끌어다 길을 막았다.

“폭풍에 젖은 흙을 찾는 거야. 여기엔 수돗물 준 흙뿐이거든. 바깥에는 흙이 거의 없어. 판석과 좁은 길과 운하뿐이니까. 나가면 빗물이 물속으로 쓸어 가 버려.”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실처럼 가는 다리 네 개를 단 씨앗은 저 밖에서 웅덩이에 빠진 종이만큼밖에 못 버틸 것이다.

고양이 문은 막혔다. 하지만 이제 씨앗들은 어둠 속에서 부엌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부엌에는 숨을 곳이 백 군데나 있다. 냉장고 밑, 양동이 뒤, 화분 사이, 물뿌리개 안, 그리고 식탁 밑.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었고, 나는 플로라 아줌마의 체를 쓰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천둥이 칠 때마다 하나 쓴다. 이 체는 싱크대 옆 못에 걸려 있었는데, 내 두 손이 저절로 내려서 가져온 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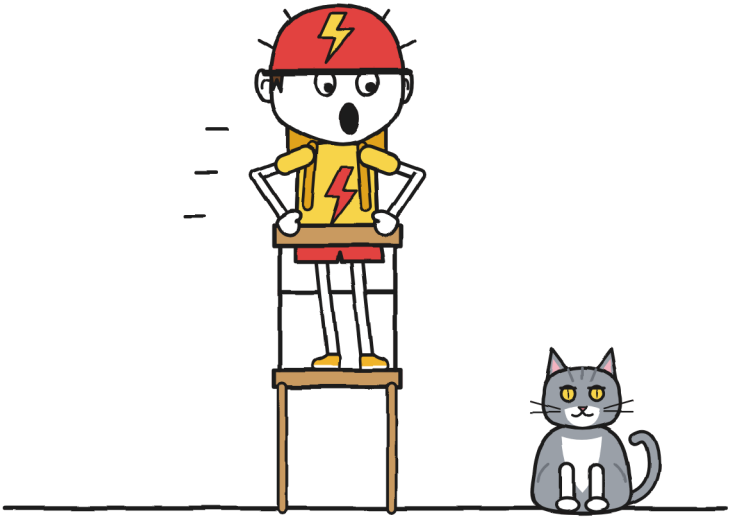
우리는 온갖 걸 다 해 봤다:

1. 훌리타는 천을 씨앗 하나 위에 던지고 그 위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천을 들췄더니 밑에 있던 건... 천둥이었다. 야아옹! 천둥은 고양이가 어디서든 나오는 식으로 천 밑에서 튀어나왔다. 몹시 기분이 상해서, 그럴 만도 했다.
2. 토뇨는 의자 밑을 기어서 씨앗 하나를 쫓아갔다. 그런데 배달원이 뭔지 모르는 천둥이 토뇨의 등에 올라타 거기 앉아서 여행을 즐겼다. 저리 가!
3. 식탁 밑에서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고, 그 불꽃이 훌리타의 손에서 두 뼘 떨어진 씨앗 하나를 멈춰 세웠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하나!'
4. 플로라 아줌마는 손전등을 다른 씨앗에 꽂아 꼼짝 못 하게 한 뒤, 바닥에 떨어진 자두를 주울 때처럼 느긋하게 집어 들었다. '둘!'

천둥도 씨앗을 쫓아다녔다. 천둥은 어둠 속에서도 거의 다 보인다. 우리는 못 본다. 우리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더듬더듬 서로에게 사과하는 동안, 천둥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한가운데를 지나다녔고, 다른 리그에서 놀고 있다는 게 티가 났다.

토뇨는 폭풍이 무섭지 않다. 토뇨가 무서운 건 고양이다.

천둥이 토뇨의 등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그걸 알았다. 토뇨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대신 의자 위로 올라가서 거기 꼿꼿이 서 있었다. 헬멧을 쓴 채, 다리가 허락하는 한 발을 바닥에서 가장 멀리 떼고. 천둥은 그 밑에 태연히 앉아 토뇨를 진열창 보듯 쳐다보았다.



"고양이가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천둥이야!"

"더 나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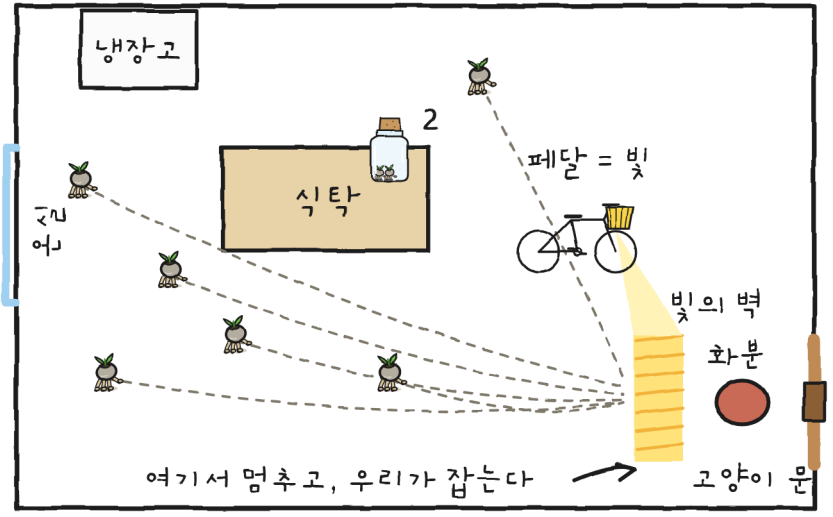
나는 웃지 않고 적는다. 웃을 자격이 없으니까. 토뇨의 무서움은 의자 위로 올라가 있어서 모두에게 보였다. 내 무서움은 식탁 밑에서 체를 쓰고 있었다.

식탁 밑 전문가. —J.

그 아래서는 번개가 칠 때마다 바닥이 전부 보였다. 씨앗들은 의자들 사이를 빙빙 돌았지만 늘 고양이 문의 화분을 밀러 돌아왔다. 세게 밀지는 않았다. 하지만 늘 밀었다.

그래서 약도를 그렸다.

공책을 무릎에 얹고 번개가 칠 때마다 선을 하나씩 그었다. 내가 아는 가장 빨리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그린 약도는 선이 삐뚤삐뚤하지만 화살표는 전부 한 곳을 향하고, 중요한 건 그거였다. 고양이 문 앞에 빛의 벽을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를 그렸다: 페달 = 빛.



"토뇨, 네 자전거 전조등은 페달을 밟으면 켜지니?"

"당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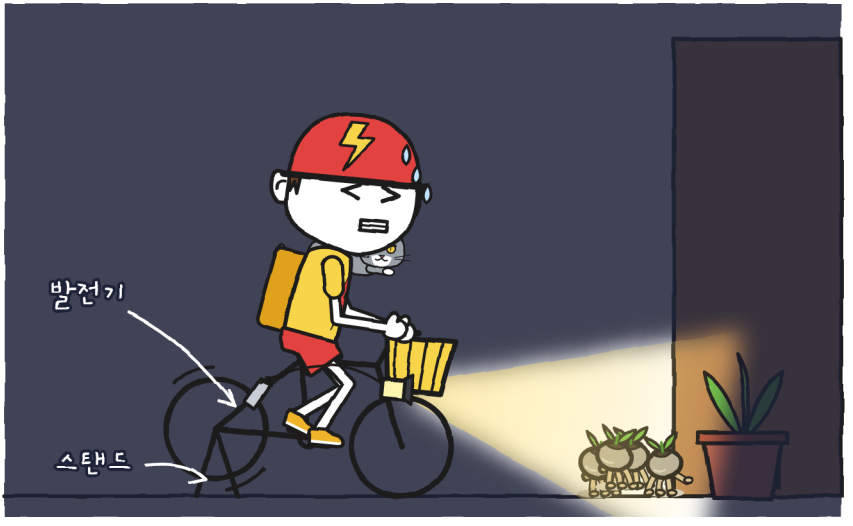
"그럼 오늘은 빛을 배달하는 거야."

플로라 아줌마가 약도를 비춰 주었다. 훌리타가 식탁보 밑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토뇨는 의자에서 내려왔다. 자기 자전거를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내려온다.

우리는 자전거를 스탠드에 세우고 전조등이 고양이 문을 향하게 했다. 번개배송 자전거의 발전기는 뒷바퀴에 붙어 있어서, 바퀴가 돌면 불이 켜진다. 그리고 토뇨가 페달을 밟았다.

토뇨는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페달을 밟은 적이 없었다. 특히 천둥이 토뇨 위로 뛰어올랐을 때는.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렸다.



아무 데도 가지 않는 자전거, 그리고 아주 멀리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밟는 페달. 빛이 전조등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노랗게 떨렸고, 그다음에는 하얗고 곧게, 고양이 문 앞에 벽처럼 섰다. 그게 내 빛의 벽이었다. 현실에서, 땀방울과 함께.

씨앗들은 빛에 닿으면 가만히 멈췄고, 우리는 하나씩 잡아서 병에 넣었다. 셋. 넷.

나는 식탁 밑에서 나와 훌리타 옆에서 빛의 가장자리에 네발로 엎드렸다. 씨앗들은 선을 밟으면 멈췄다. 구슬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정도였다. 손가락을 재빨리 오므려야 했다. 그림자가 닿는 순간 다시 달아나려고 했으니까.

천둥이 입으로 씨앗 하나를 물었고, 플로라 아줌마가 손가락 두 개로 그걸 빼앗았다.

"다섯!" 아줌마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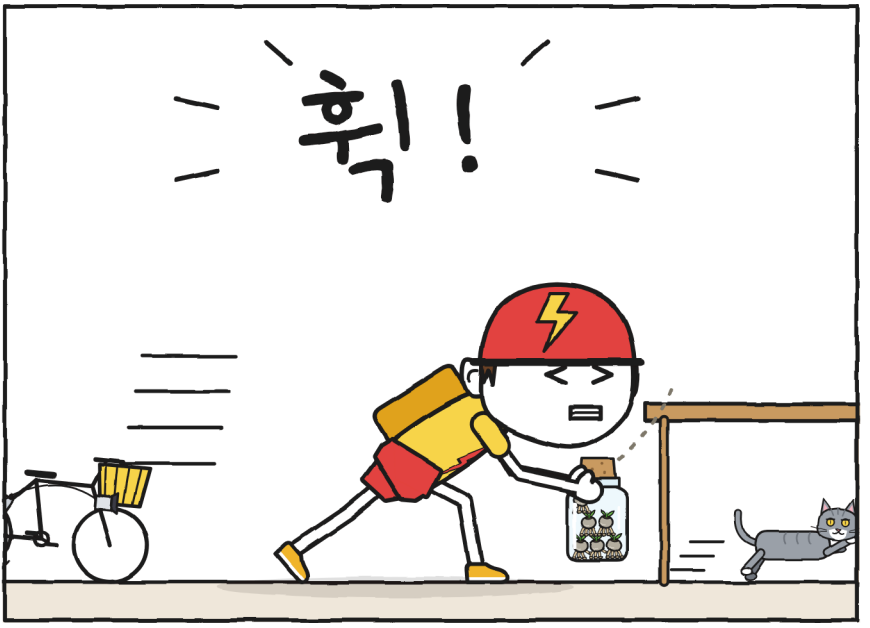
여섯.

훌리타가 멜빵바지에서 마개를 꺼냈고, 플로라 아줌마가 여섯 개가 딴생각을 못 하도록 코르크를 단단히 눌러 병을 막았다. 그러고는 우리를 도우려고 몸을 숙였다. 그때 천둥이 식탁으로 뛰어올라 병을 쓰러뜨렸다.

나는 곁눈으로 병이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보았다. 코르크 마개를 한 병이 공중에서 한 바퀴를 통째로 도는 걸. 그리고 토뇨가 페달에서 발을 떼고, 골키퍼처럼 몸을 쭉 뻗어 자전거에서 튀어나가, 바닥에서 한 뼘 위에서 두 손을 오므리는 걸 보았다. 휙!

"번개배송." 토뇨는 타일 바닥에 엎드려 병을 높이 들고 말했다. "1초 안에 못 하면 공짜."

내가 평생 본 가장 빠른 배달이었다. 여기 공책에는 인정한다. 소리 내서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 나온 건 딸꾹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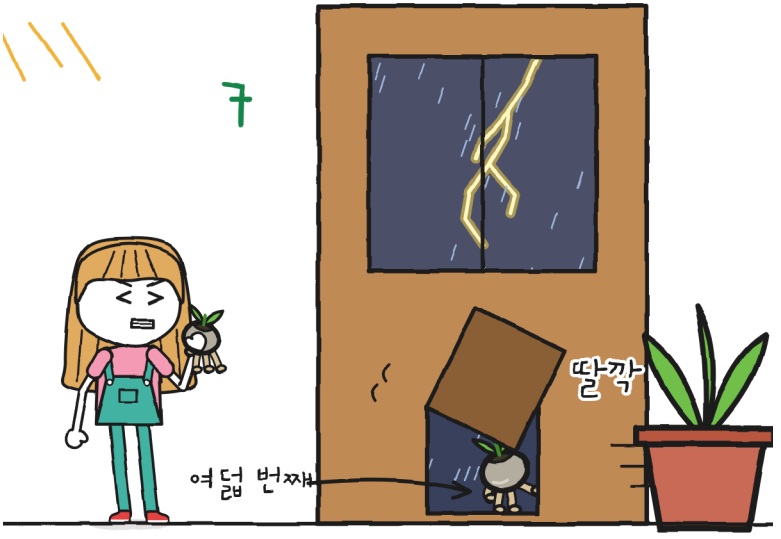
하지만 토뇨가 페달을 멈춘 탓에 불이 꺼졌다. 그리고 천둥은 아무도 못 말린다. 천둥은 쏜살같이 고양이 문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똑, 똑, 똑. 그다음에 드르륵: 나가고 싶었고 결국 나간 고양이가 화분을 밀어낸 소리. 딸깍: 고양이 문. 그리고 그 뒤에서 아주 빠르게 또 똑, 똑, 똑. 천둥이 아닌 소리였다.

다시 번개가 쳤을 때 바닥에는 씨앗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플로라 아줌마가 들어갈 만큼만 병을 열었다가 다시 코르크를 눌렀다. 일곱.

그 번개에 나는 문의 유리 너머로 빗속에서 반짝이는 판석 마당과 좁은 길을 보았고, 좁은 길 한가운데에, 걷다 만 자세로 멈춘 아주 작은 씨앗을

보았다. 물 때문에 작은 잎이 접혀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밤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번개에는 좁은 길에 아무것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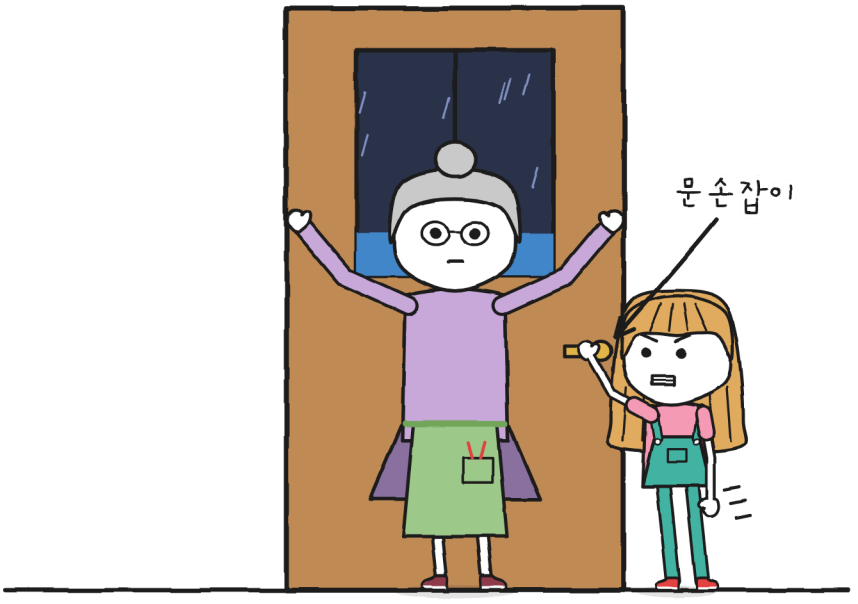
여덟 번째 씨앗은 고양이 문으로 나가 버렸다.



"내가 찾아올게요!" 훌리타가 벌써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말했다.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 집에서 못 나가." 플로라 아줌마가 잘라 말했다. 따질 기분이 아니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유리를 등지고 두 팔을 벌린 채 문 앞에 버티고 섰다. 훌리타는 아줌마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았다: 좁은 길, 운하, 비. 훌리타는 이를 악물었다.



훌리타는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놓지도 않았다.

잠시 뒤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두 번째로 흠뻑 젖은 천둥이었다. 털이 착 달라붙고, 평생 화분 한 번 밀어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혼자였다. 여덟 번째 씨앗은 없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혹시 몰라서 발로 화분을 다시 고양이 문 쪽으로 밀어 놓았고, 천둥은 폭풍이 우리 일이라는 듯 식탁 밑에 가서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만 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딸꾹이었다. 밖에서 하늘이 다시 번쩍였다.

"번개...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우르릉.

"둘." 훌리타가 셌다. "아직 아주 가까워."

훌리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우리가 아니라 문을 보면서 말했다. 코끼리 둘이면 1킬로미터도 안 된다.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는 그게 오늘 밤 최악의 소식이었을 텐데, 지금은 두 번째로 나쁜 소식이었다.

"그럼 이제 심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폭풍이 가기 전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는데요?" 훌리타가 문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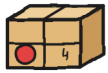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는 온실 유리 위로 올라가는 빗방울을 가리켰다.

"마법은 아직 걸려 있어. 번개는 밖에 있고 우리는 안에 있지."

우리는 병을 보았다. 안에는 씨앗이 일곱 개 있었고, 몇몇은 작은 다리를 유리에 붙인 채 유리를 재 보는 것 같았다. 유리 위에는 번개마다 그 빛이 떨리며 비쳤다. 여덟 중 일곱. 사물을 세는 나는 그 숫자를 마음에 담았다. 여덟은 아니지만 0도 아니고, 그날 밤에는 일곱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플로라 아줌마가 부스러기를 보며 되풀이했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나를 보며 딸꾹질을 했다.



제4장

딸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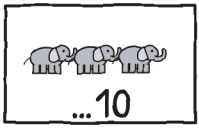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가 R.이 가르쳐 준 대로 초롱꽃 심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매직펜을 꾹 눌러 받아 적었다. 네 단계였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기한이었다.

초롱꽃 심는 법

1. 
폭풍에 젖은 흙.
(수돗물 준 흙은 안 돼.)

2. 
흙 위에서 병 열기.
(먼저 열면 도망간다.)

3. 
전부 어둠 속에서: 씨앗들이 스스로 흙 속으로 들어간다.
(네가 묻으면 싹이 안 터.)

4. 

폭풍이 가기 전에:
코끼리가 열 마리를 넘으면,
다음 폭풍 때까지 심어지지 않는다.

코끼리 열 마리까지는 깨어 있어. 열한 마리부터는 잠들어. —J.

그러니까 기한은 두 가지였다. 씨앗들에게는 코끼리 열 마리, 우리에게는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

플로라 아줌마는 내가 쓰는 동안 공책을 비춰 주었다. 단계들을 외워서 말했다. 나는 R.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았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나는 딸꾹질을 두 번 했다. 부스러기는 불꽃을 두 번 뿜었고, 부엌이 플래시처럼 두 번 번쩍였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쯤 되자 부스러기와 나는 그 집의 조명이었다. 식탁 밑의 천둥은 그 단계들이 자기를 위한 것인 양 귀를 기울였다.



플로라 아줌마가 온실 유리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다. 부스러기는 내 장화에 바짝 붙어 있었다. 나는 그런 줄 알았다.

온실은 부엌에 붙어 있다. 길고 좁으며, 벽에는 화분 선반이 있고 가운데에는 화단이 있다. 흙이 가득한 긴 탁자인데, 그 밑에도 화분이 더 있다. 낮에는 초록빛의 조용한 곳이겠지. 밤에, 폭풍 속에서, 지붕 전체가 번개마다 하얘졌다.

지붕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창이 하나 있다. 플로라 아줌마가 그 창의 크랭크를 돌렸다. 창은 닫힌 채였지만, 그려 놓은 빗방울들이 올라가기를 멈추고 유리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진짜 비가 유리를 통과해 화단의 흙 위로 떨어졌다.

"전부 화단으로. 바닥에는 한 방울도 안 돼." 플로라 아줌마가 비가 자기 것인 양 명령했다.

금방 막 물을 준 흙냄새가 났다.

이 유리는 이야기 속에만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온실에 절대 가지 마. 마지막 쪽을 봐. —J.

"폭풍에 젖은 흙이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이제 전부 어둠 속에서. 서둘러라."



훌리타는 병을 두 손에 든 채 문가에 서 있었다. 문손잡이 대신 병을 쥔 것인데, 똑같이 꽉 쥐고 있었다.

그때 화분이 부딪치는 소리가 났고, 화단 밑 안쪽에서 노란 눈 두 개와 떨리는 날개 두 개, 그리고 3초마다 작은 불꽃이 나타났다. 딸꾹. 부스러기는 이미 안에 있었다. 문을 열 때 플로라 아줌마의 발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플로라 아줌마가 조심조심 끌어당겼다. 부스러기는 네 발로 화분을 꽉 붙잡았다.

화분 두 개를 붙잡은 아기 용은 갑자기 화분 두 개만큼의 무게가 나간다. 잡초를 허락도 없이 뽑아 버리는 플로라 아줌마도 손을 놓고 무릎을 꿇은 채 부스러기를 바라볼 뿐이었다.

헤라 아줌마가 말했잖아. 나는 들었어. 너는 가슴 네미느라 바빴지. —J.

그리고 내가 부엌에서 딸꾹질을 할 때마다 온실에서는 부스러기가 불을 뿜었다. 문 저편에서 화분들이 아래에서부터 환해졌다. 딸꾹: 번쩍. 딸꾹: 번쩍. 냉장고 불빛처럼. 다만 그 문이 나였고, 나는 나를 닫을 줄 몰랐다.

부엌에서는 딸꾹질이 도움이 되었다. 불꽃, 가만히 있는 씨앗, 잡힌 씨앗. 여기서는 심는 걸 방해했다. 3초마다 불꽃이 터지니 어둠이 충분히 오래 이어진 적이 없었다. 천둥과 부스러기 사이에, 체를 쓴 내가 있었다.

이해하려고 그림으로 그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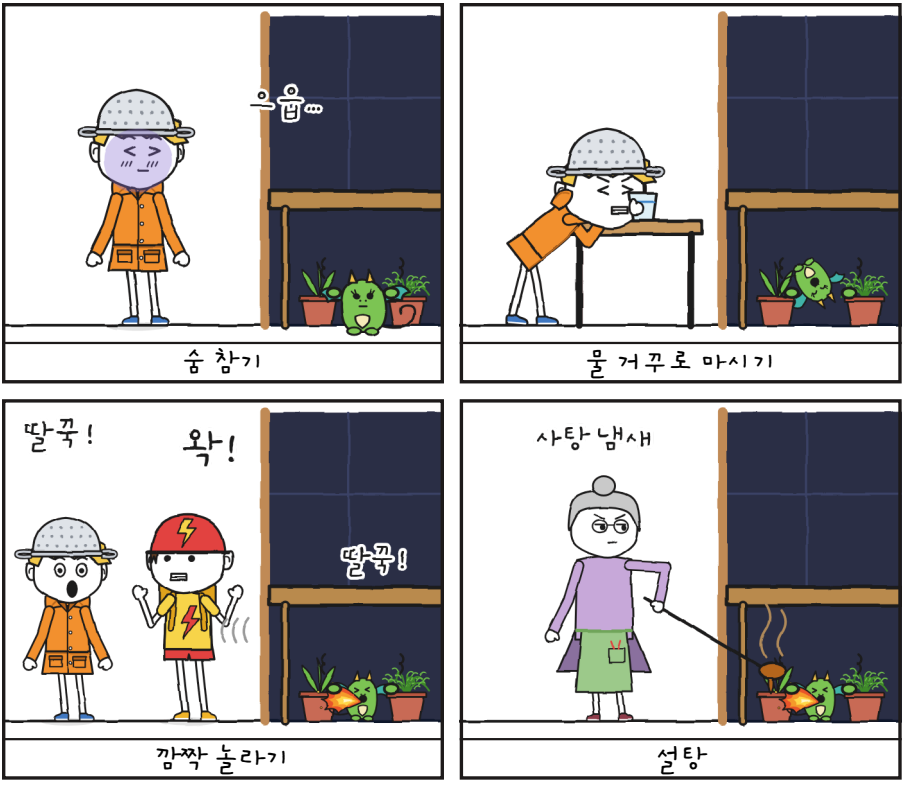
우리는 딸꾹질에 좋다는 방법을 다 해 봤고, 부스러기가 조수였다. 부스러기는 방법을 따라 하고, 덤으로 딸꾹질까지 따라 했다.

숨 참기: 나는 얼굴이 보라색이 되었고 부스러기는 더 초록색이 되었다. 물 거꾸로 마시기: 나는 코에 물이 들어갔다. 깜짝 놀라기는 토뇨가 맡았는데,

예고도 없이 "왁!" 하고 소리쳤다. 놀라기는 놀랐지만 딸꾹질은 그대로 했고, 부스러기의 불꽃은 토뇨의 헬멧에 그려진 번개를 그슬렸다. 마지막은 플로라 아줌마의 아이디어로 설탕 한 숟갈이었다. 부스러기의 설탕은 입에 닿기도 전에 캐러멜이 되었고, 온실에는 한참 동안 장터 냄새가 났다.



사슬을 끊어야 해. 제일 끊기 쉬운 고리는 너야. 사랑을 담아. —J.



"코끼리 넷. 다섯."

천둥이 울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딸꾹.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씨앗 일곱 개가 병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씨앗들도 나갈 곳을 못 찾았고, 나도 입을 다물 방법을 못 찾았다.

"열까지는." 내가 말했다. "아직 할 수 있어."

다음 번개에 토뇨가 빠르게 세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훌리타가 말했다.

토뇨는 입을 다물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손전등을 끈 채 기다리고 있었다. 서두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거의 더 나빴다.

“부스러기는 네 무서움을 따라 하는 거야.” 훌리타가 말했다.

“그럼 다른 걸 따라 하라고 해.” 내가 말했다.

딸꾹.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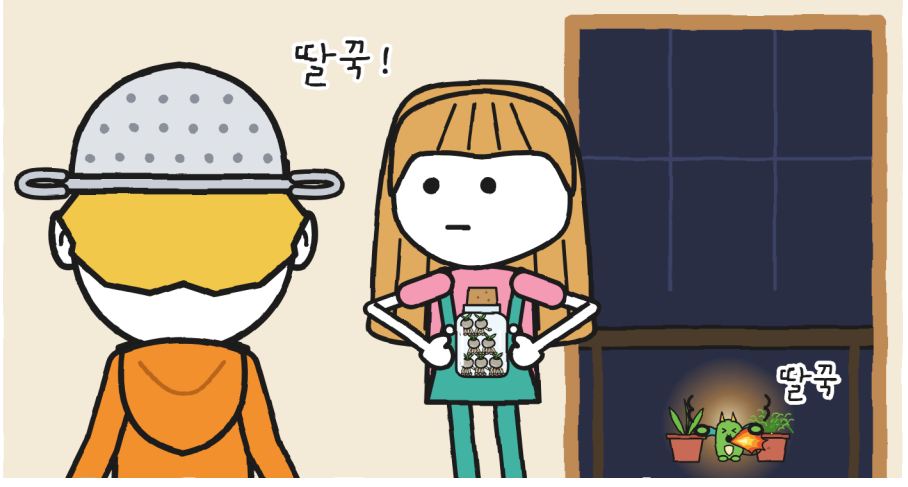
“부엌으로 데려 나오면?” 내가 물었다.

“꽉 붙잡고 안 나와. 봤잖아.”

온실 문을 바라보았다. 아까보다 훨씬 멀어 보였다.

훌리타가 목소리를 낮췄다.

“먼저 네가 곁에 있어 줘.”



나한테는 계획이 있었다. 문제는 이런 일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였다.

천둥이 무섭다는 걸 들키지 않는 내 계획:

1. 엄청 좋아한다고 말하기.
2. 딸꾹질 안 하기.
3. ???

2번은 그날 밤 딸꾹질로 글씨가 안 보일 때까지 지워졌다. 1번은 아직 서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도.

3번은? —J.

나는 해 보았다. 정말로.

문턱으로 다가갔다. 훌리타가 병을 들고 비켜서서 자리를 내주었다. 아무도 나를 떠밀지 않았다.

온실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아주 결연하게, 체를 쓴 채, 한 손은 문틀에 얹고. 발은 잘 들어갔다. 5월의 수영장에 발이 들어가는 식으로. 발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두고 보자.

번개가 지붕 전체를 하얗게 만들었다. 나도 모르게 세었다: 코끼리 다섯 마리.

우르릉!

마법 유리는 소리를 막아 주지 못했다. 지붕 전체가 북처럼 울렸다. 딸꾹! 화단 밑에서도: 딸꾹! 그리고 불꽃.

다음에 내가 아는 건 다시 부엌에 있다는 것이었다. 냉장고에 바짝 붙어, 체를 눈썹까지 눌러쓴 채. 걸어왔던 기억이 없다. 내 발도, 내 손처럼, 제 나름의 버릇이 있다.

냉장고에 기대어 있었다. 손은 차갑고 심장은 귀에 있었다. 내 머리에서 손가락 두 마디 떨어진 곳에 산책로 사진이 있었다. 지금은 내가 딸꾹질로 끄고 있는 작은 불빛들의 줄.



문가에서 유리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번개와 번개 사이에 나는 보았다. 폭풍 속을 날고 있는 베라 아줌마의 용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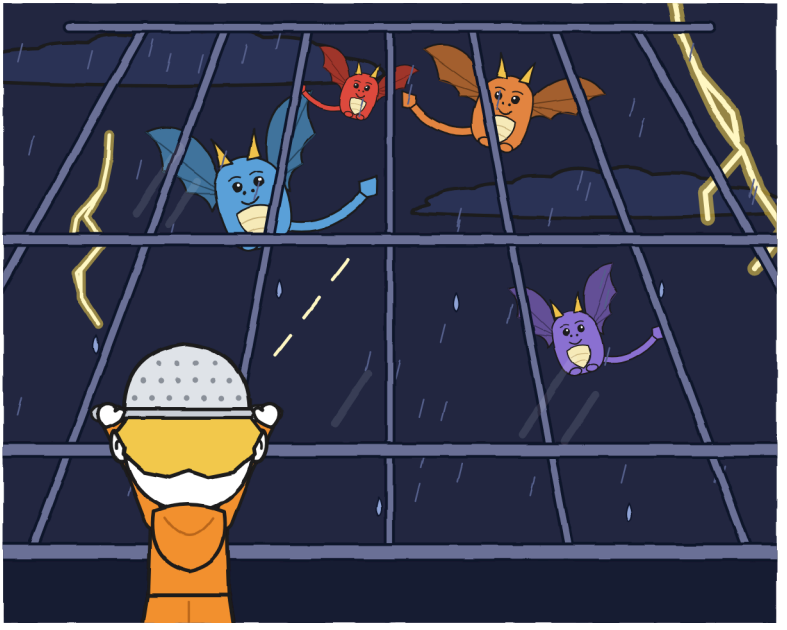
모두 네 마리였다. 파랑, 주황, 보라색의 커다란 세 마리가 번개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번개가 활주로의 조명이라도 되는 듯이. 그리고 그 사이에 더 작은 네 번째, 빨간 용. 지붕 훨씬 위, 폭풍 한가운데, 천둥이 가장 심한 곳을 날면서도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번개가 용들을 통째로, 비늘 하나하나까지 하얗게 그려 내고, 그러다 꺼지면, 용들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건 지붕 위의 빗물이 그림자로 갈라지는 걸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베라 아줌마는 우리와 함께 오지 않은 거였다. 폭풍이 치면 용들이 날아오르고, 아줌마는 집에 남아 용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본다. 나는 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화단을 보았다. 부스러기도 언젠가 용들과 함께 날 것이다. 그날 밤에는 화분들 사이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나를 따라 하고 있었다.

용들은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가자, 사냥꾼." 토뇨가 말했다.

놀림을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토뇨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체를 벗어 플로라 아줌마에게 건넸다.

플로라 아줌마는 체를 진짜 헬멧처럼 손잡이를 잡고 들었다. 나는 눌린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었다. 머리는 똑같이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들어갔다.

안에서는 빗소리가 손가락 천 개가 한꺼번에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네발로 기어 화단 밑으로 들어갔다. 부스러기가 거기 있었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나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젖은 흙냄새가 났다. 부스러기 옆에 몸을 낮추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나는 배에서부터 떨었고, 부스러기는 날개에서부터 떨었다. 둘이 같이 화분들을 덜덜 울렸다.

세어 보려고 했다. '코끼리 하나, 딸꾹, 코끼리 두..., 딸꾹'. 딸꾹질이 코끼리 사이로 끼어들었다. 셈을 놓쳤다.

나가고 싶었다. 내 다리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스러기가 네 발로 화분을 꽉 붙잡았다.

나는 남았다.

우르릉!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다. 불꽃이 우리 둘을 환하게 비췄다.

부스러기는 나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비늘이 있는.

우리는 화단 밑에 숨은 폭풍 사냥꾼 둘이었다.

그때 문가에서 훌리타가 웃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같이 셀게."



제5장

내가 같이 셀게

그렇게 우리는 셌다. 훌리타는 문가에서, 나는 화단 밑에서 쪼그려 앉아, 부스러기는 내 비옷에 기대어 덜덜 떨면서.

번개.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르릉.

"여섯이면 2킬로미터쯤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어. 우리는 계속 안전한 데 있자."

이번에는 천둥이 여섯에 왔다는 걸 알았다. 세지 않았다면 그냥 천둥 하나였을 것이다. 세기는 기다리는 동안 내게 할 일을 주었다.

부스러기는 내 비옷에 기대어 계속 떨고 있었다.

나는 이미 체도 써 보았다. 물도. 온실에서 나가 보기도, 다시 들어오기도.

"난 천둥이 무서워."



화분들을 향해 한 말이었다. 훌리타는 그래도 들었다.

"알고 있어. 오늘 아침에 그려 놨잖아, 네가 폭풍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훌리타는 이미 부스러기가 내 무서움을 따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고칠 만한 다른 것을 찾았다. 딸꾹질, 화분, 문.

이번에는 '하지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소리 내어 고맙다고 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남겨 둔다.

일었어. 천만에. —J.

"난 고양이가 무서워." 토뇨가 말했다.

천둥은 토뇨의 무릎에서 자고 있었다. 토뇨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난 오지 않는 걸 기다리는 게 무섭단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래서 병을 받자마자 열곤 했지."

난 널다리가 무서워. 그건 다들 알잖아. —J.

아무도 웃지 않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똑같이 내렸다. 부스러기는 여전히 내 비옷에 기대어 있었다. 화단 밑에서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널다리에서처럼. 들이쉬고. 내쉬고. 부스러기도 나와 함께 숨을 쉬었다. 부스러기가 떨기를 멈추자 내 손도 조금 풀렸다.



번개. 우리는 같이 아홉까지 셌다. 우르릉. 의자에 앉은 토뇨는 낮은 소리로 "하나둘셋" 하다가 늘 그러듯 셋에서 멈췄다. 천둥은 깨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그 천둥에도, 다음 천둥에도.

딸꾹질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부스러기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온실은 필요한 만큼 어두웠다.

"지금이야!" 플로라 아줌마가 속삭였다.

훌리타는 어둠 속에서 발끝으로 걸어 들어갔다. 쪼그려 앉은 화단 밑에서 훌리타의 운동화가 내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으며, 온실 바닥이 널다리라도 되는 것처럼. 훌리타는 병을 젖은 흙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마개는 작게 "뽕" 소리를 냈다. 미안하다고 비는 듯한 소리였다. 부엌의 뽕!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뛰지 않고, 발을 가만히 둔 채 문가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병을 제때 열었어. 기록해 둬. —J.

똑, 똑, 똑. 어둠 속에서 병 밖으로 뭔가 나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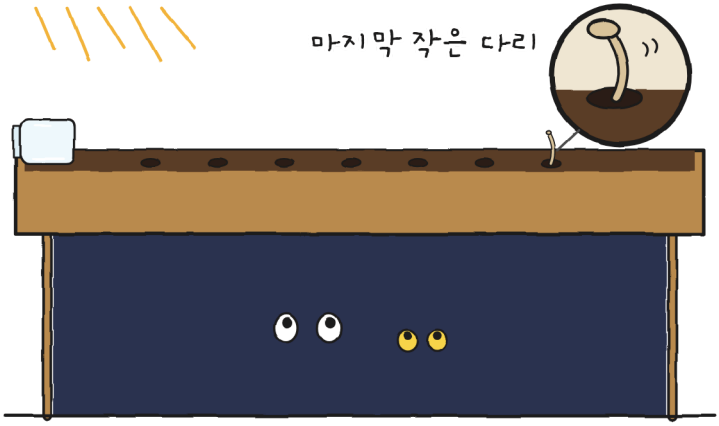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들렸다. 뿌리 다리가 유리를 타고 내려와 젖은 흙을 밟는 작은 소리 일곱 개, 다리마다 똑 한 번씩, 빗소리보다 조금 더 느리게. 내 평생 들은 가장 작은 소리일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귀를 기울인 적도 없다. 지지난 토요일에 부스러기의 알껍데기가 깨질 때도 그러지 않았다.

아주 멀리서 번개. 우리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 셌다. 문가의 훌리타와 화단 밑의 나: 코끼리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르릉.

열. 코끼리 한 마리만 더 셌다면 일곱 개 모두 다음 폭풍까지 흙 위에서 잠들었을 것이다. 열은 마지막으로 셀 수 있는 수였다.

다음 번개가 칠 때 우리는 보았다:

병은 비어 있었고 화단 한쪽 끝에 누워 있었다. 흙에는 피리의 구멍처럼 작은 구멍 일곱 개가 한 줄로 나 있었고, 마지막 구멍에는 아직 뿌리 다리 하나가 삐죽 나와 마저 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씨앗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어두워졌고, 다음 번개에는 그 작은 다리가 없었다.



그러고는 한참 아무 일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만 흙이 담긴 화단을 바라보았다.

플로라 아줌마는 두 손을 입 앞에 모으고 있었다. 토뇨는 고양이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훌리타도, 웬일로, 움직이지 않았다. 부스러기와 나는 동시에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초롱꽃에 불이 켜졌다.

화단 한가운데의 작은 불빛이었다. 초록빛과 금빛이 섞인, 촛불만 한 크기의, 흙에서 솟아나는 불빛. 그것은 자랐다. 빨대로 주스가 올라가듯

가는 줄기를 타고 올라갔고, 맨 위에서 둥글고 오므린 꽃이 열렸다. 얇은 종이로 만든 것 같은, 안에 빛이 든 꽃. 그러고는 두 번째에 불이 켜졌다. 그다음에는 순서대로 세지 못했다. 나머지가 거의 동시에 켜졌으니까. 밤이 되면 한 길의 가로등이 켜지듯이.

초롱꽃 일곱 송이. 송이마다 번개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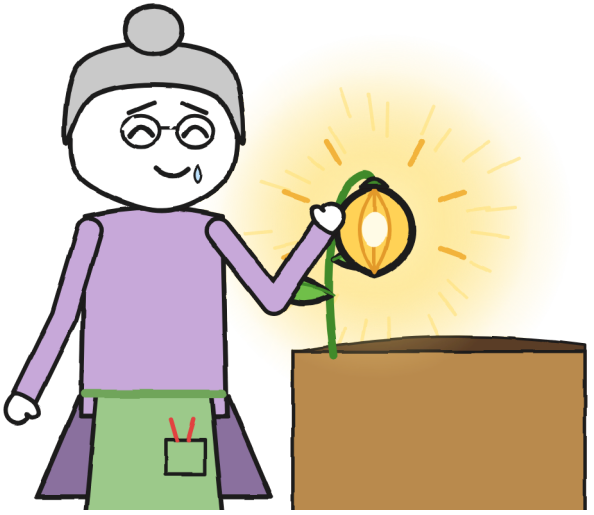
번개의 빛은 아니었다. 번개는 온실 전체를 순식간에 하얗게 만들고는 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남겨 둔다. 이 빛은 노랗고 초록빛이 조금 섞여 있었고, 머물렀다. 가만히 있는 번개, 기다리는 법을 배운 번개. 딱 필요한 만큼만 비추었다. 흙, 줄기, 얼굴들.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린 플로라 아줌마. 입을 벌린 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훌리타. 고양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천둥을 안고 있는 토뇨. 그리고 화단 밑에서 막 나온 부스러기와 나. 부스러기는 나처럼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더는 내 무서움을 따라 하지 않았다. 이걸 따라 하고 있었다.

멀리, 아주 멀리서 다시 천둥이 쳤다. 훌리타는 버릇처럼 작은 소리로 셌고, 도중에 숫자를 잃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꽃 하나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졌다. 오랫동안 자기를 기다려 온 무언가를 만지듯이.



“산책로가 이랬단다.” 아줌마가 말했다.



꽃을 향해 한 말이었다. 냉장고의 사진에는 이런 불빛이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널다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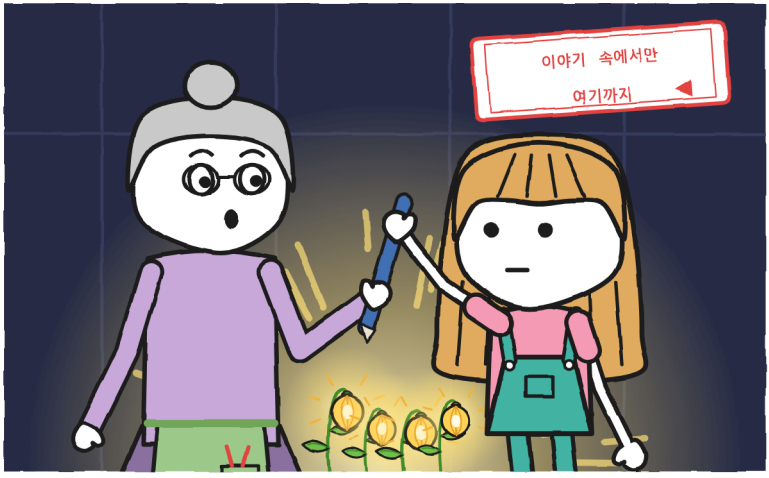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의 안경에 김이 서렸다. 울었다고 쓰지는 않겠다. 그림으로 그린다, 같은 게 아니니까. 플로라 아줌마는 우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주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를 만져 보았다. 부스러기도, 발 하나로, 아주 조심스럽게. 부스러기의 둥지에 있는 태양석처럼 미지근했다. 태양석은 낮의 열기를 간직한다. 이 꽃은 다른 걸 간직하고 있었고, 똑같이 잘 간직하고 있었다. 참고로 플로라 아줌마의 고사리는 멀쩡했다.

플로라 아줌마가 크랭크를 돌렸다. 그려 놓은 빗방울들이 다시 올라갔고 화단에는 비가 그쳤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초롱꽃들 사이에서, 서명하려고 볼펜을 꺼냈다.

파란색이었다. 지워지는 잉크인지 아닌지 볼 겨를도 없었다. 훌리타가 벌써 손을 얹고 있었으니까.

"아직이에요." 훌리타가 아줌마의 손을 막으며 말했다. "하나가 남았어요. 여덟 번째요. 제 탓에 나갔어요. 제가 병을 너무 일찍 열었거든요."



훌리타는 하루 종일 그 서명을 기다렸다. 그런데 방금 손가락 두 개로 그걸 막은 것이다.

플로라 아줌마는 볼펜을 허공에 든 채 있었다. 그러고는 볼펜을 집어넣었다.

"그래." 아줌마가 말했다.

우리는 한 명씩 부엌으로 돌아왔다. 유리 너머로 일곱 송이의 초롱꽃이 켜져 있었다. 부엌에 오자 플로라 아줌마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섰다:

"마당은 아직 닫혀 있어. 아직은 나가지 않는다."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

훌리타는 상자에서 라벨을 찢어지지 않게 천천히 떼어 멜빵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열쇠를 넣듯이.

배달하려면 끝까지 해야 해. —J.

우리는 훌리타가 셀 번개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부엌에서 기다렸다.

코끼리 열두 마리. 열여섯 마리. 스물한 마리, 그리고 이제는 천둥이 아니라 두 층 위에서 가구를 끄는 소리 같은 소리. 그러고는 하늘이 구름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번쩍였고, 훌리타는 코끼리가 떨어질 때까지 셌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창문에는 비가 그쳤다. 폭풍이 지나간 것이다. 그래도 플로라 아줌마는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을 더 우리를 안에 두었다. 훌리타의 규칙이었고, 이번에는 훌리타가 그걸 지킬 차례였다. 이를 악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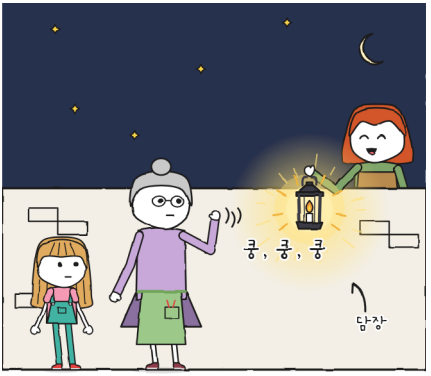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가 뒷문을 열었다. 마당은 젖은 채 고요했고 판석이 반짝였으며, 구름 사이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나온 별들. 훌리타는 문턱에 서 있었고, 나도 그 옆에 있었다.

여덟 번째 씨앗은 아직 저 밖에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네 집에서는 널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산책로의 담이 가렸다. 제때 흙을 찾지 못했다면 벌써 돌멩이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운하로 흘러가는 빗물을 생각하고는 물을 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늘 있던 기한이 남아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의 서명이 없으면 해 뜰 때 2번 택배는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해가 뜰 때까지가 우리의 시간이었다.

"찾으러 가요."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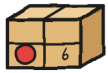
훌리타는 다시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있었다. 이제 문은 열려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한참 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마당 담장을 세 번 두드렸다. 베라 아줌마가 말한 대로, 용의 집 벽이다. 쿵, 쿵, 쿵. 손마디로, 서두르지 않고.

담장 너머 저쪽에서 등불이 켜졌다.

"이번에는 너희끼리만 가는 게 아니야." 아줌마가 말했다.



제6장

여덟 번째

우리는 어른 둘, 등불 하나, 자전거 한 대와 함께 나갔다. 그 전에 플로라 아줌마가 우리 집과 훌리타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아이들 돌려보내 드릴게요. 아이들끼리 가지는 않아요.'

목록을 만들어서 나간 건 내 평생 처음이었다:

- 베라 아줌마, 등불을 들고.
- 플로라 아줌마, 손전등을 들고.
- 토뇨, 자전거를 밀며. 발전기가 불을 밝히도록.
- 훌리타, 빈 병을 들고, 라벨은 멜빵바지 주머니에 넣고.
- 그리고 나, 비옷 안에 부스러기를 넣고, 부스러기의 머리는 밖으로.

베라 아줌마는 두드림 소리가 나고 1분 뒤에 길을 따라 도착했다. 빨강 머리는 젖어 있었고 등불을 높이 들고 있었다. 누가 뭘 잃어버렸느냐고 묻지도 않고 우리 앞에 섰다.

부스러기와 나는 더는 떨지 않았다.

우리는 마당과 좁은 길과 운하 가장자리를 찾아보았다.

플로라 아줌마는 손전등으로 판석을 살폈다. 토뇨는 자전거를 밀며 연석을 따라갔다. 훌리타는 혹시 따뜻한 돌이 있을까 해서 산책로의 돌들을 만져 보았다. 부스러기와 나는 풀숲마다 밑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잠든 씨앗은 밤에는 그냥 돌멩이다. 그리고 산책로에는 돌멩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날 밤 훌리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알았다. 전부 잠든 씨앗처럼 보였다. 하나도 아니었다.

토뇨는 배달하듯이 찾았다. 산책로 전체를 10분 안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또 한 번.

등불의 빛이 젖은 돌들에 반사되어 사방이 반짝였다. 그때 생각이 났다. 이제 막 싹튼 초롱꽃은 아주 약하게 빛날 것이다. 우리는 작은 불빛 하나를 찾으면서 불빛을 세 개나 켜 놓고 있었고, 그 빛들이 작은 불빛을 삼켜 버리고 있었다.

"전부 꺼 주세요!" 내가 말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토뇨는 급정거했고 자전거의 불이 꺼졌다(번개배송은 절대 멈추지 않는데). 베라 아줌마는 등불의 불꽃을 아무것도 아닐 때까지 낮췄다. 플로라 아줌마는 손전등을 껐다. 잠시 동안 산책로 전체에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산책로 끝에 작은 불빛이 보였다.

널다리 끝자락에 있었다.

훌리타가 그쪽으로 걸어갔다. 나머지는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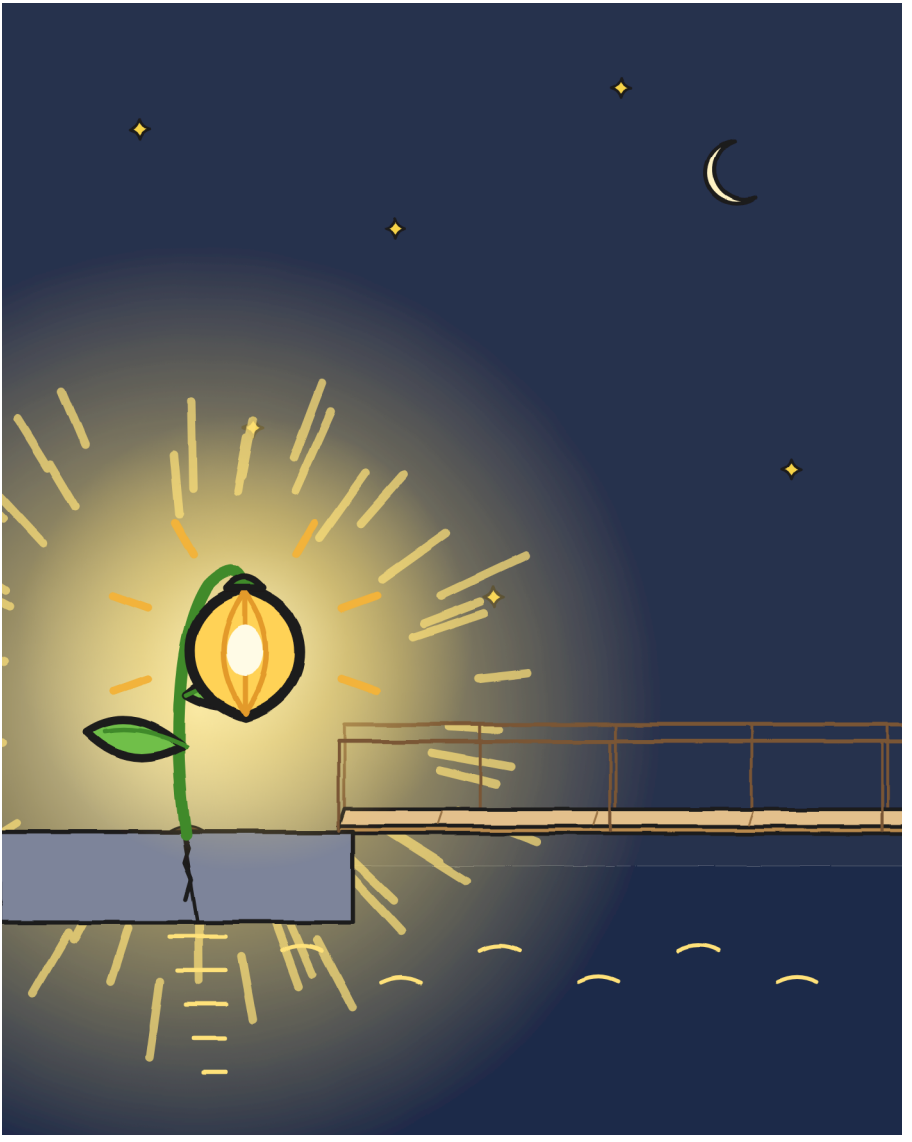
여덟 번째 씨앗은 빗물에 좁은 길을 따라 산책로까지 쓸려 와, 돌 두 개 사이의 틈에 걸려 있었다. 흙 한 줌과 아무도 심지 않은 풀 한 포기가 늘 있는 그런 틈이다. 거기서 씨앗은 혼자 심어졌다. 멀리서는 작은 불빛. 가까이서는 모든 걸 환하게 비추었다.

줄기는 구부러져 있었고, 온실의 일곱 송이와 같은 빛이었다. 널다리의 시작 부분과 물 한 조각을 비추고 있었다.

훌리타는 널다리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있으니 달라 보였다. 더 짧고, 더 넓고, 물보다는 나무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어디서 끝나는지가 보였다.

훌리타는 널빤지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딱 한 발. 그러고는 다시 뺐다. 걸음이 아니라 시험이었지만, 발은 잠시 여덟 번째 초롱꽃의 불빛을 밑에

두고 단단히 서 있었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걸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훌리타가 길을 보고 있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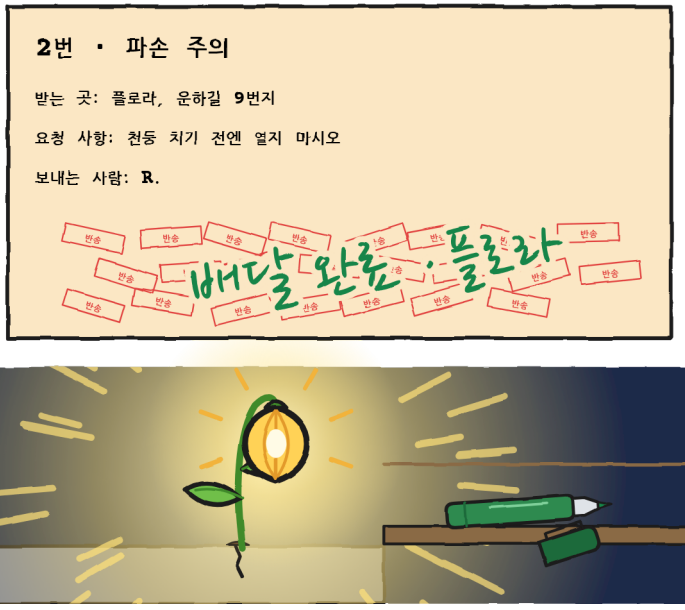


멀리서는 이제 안 무서워. 가까이서도 거의. —J.

"이건 여기 있게 하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자리를 스스로 골랐으니까."

훌리타가 라벨과 초록색 매직펜을 꺼냈다. 플로라 아줌마는 라벨을 널다리 가장자리에 받치고 여덟 번째 초롱꽃의 불빛 아래서 서명했다.

'반송' 도장 스물세 개 위에 초록색으로 적혔다: 배달 완료 · 플로라.



집 앞에서 헤어질 때 플로라 아줌마가 나에게 체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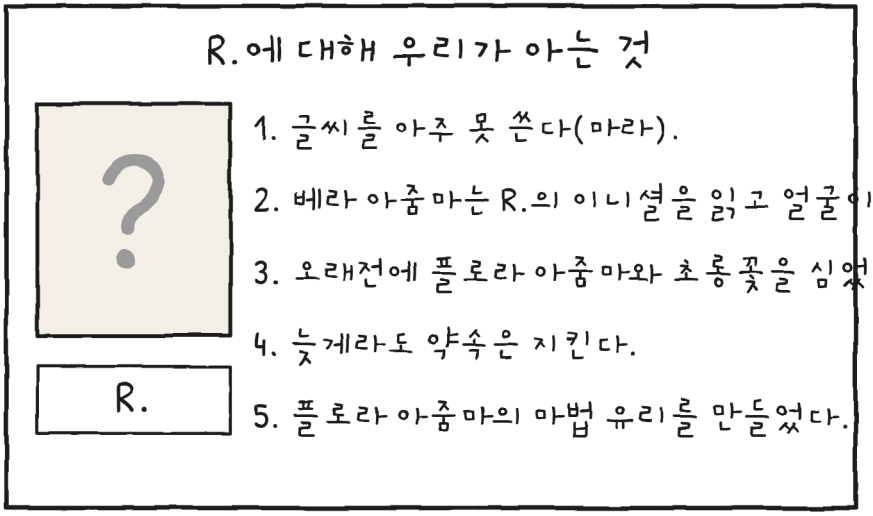
"가져가렴. 다음 폭풍 때 쓰렴."

그러고는 덧붙였다:

"마라에게 이제 때가 됐다고 전해 주렴."

아줌마는 체를 손잡이 쪽으로 내밀었다. 진짜 헬멧처럼. '또 폭풍이 오면'이라고 하지 않고 '다음'이라고 했다. '다음 토요일'이라고 하듯이. 이제 체는 내 방 창문 손잡이에 걸려 있다. 아직 열지 않은 상자들 위에. 그 방에서 어느 상자에도 들어 있지 않았던 첫 번째 물건이다.

전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내가 물을 틈도 없이 플로라 아줌마가 문을 닫았으니까. R.의 카드는 이렇게 되었다:



6.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단서야. —J.

베라 아줌마는 부스러기를 둥지에 눕혔다. 도착하기도 전에 잠들어 있었다. 지지난 토요일부터 거기 있는 내 줄무늬 스웨터 위에. 이제 스웨터에서는 내 냄새보다 부스러기 냄새가 더 난다. '첫 폭풍이었구나.'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고 턱 밑까지 덮어 주었다. 부스러기는 입을 조금 벌리고 잤다. 엄마 말로는 나와 똑같이. 폭풍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라고 이 공책이 있다.

그러고는 우리를 승합차에 태워 가게까지 데려다주었다. 토뇨의 자전거는 뒤에 눕혀서 싣고, 찻길 다리로 갔다. 큰 다리는 이미 들어 올려져 있었다. 훌리타는 운하 쪽 창가에 앉아 다리를 건너는 내내 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보였다. 저 끝, 널다리 끝자락에 아주 작은 불빛이 하나 있었다. 하나. 몇 년째 불빛 하나 없던 운하에.

가게는 깜깜했다. 불이 나간 정도가 아니라 간판까지 완전히 어두웠다. 조금 보이는 건 길가 가로등 덕분이었다. 베라 아줌마는 우리를 문 앞에 내려 주고, 폭풍이 지난 뒤에는 잠드는 데 한참 걸린다는 용들에게 돌아갔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에 없었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 있었다.

우리 셋, 훌리타와 토뇨와 나는 한 줄로 계산대 위로 턱을 나무에 괴고 고개를 내밀었다. 그 아래 빈 공간에는 마라 아줌마가 있었다. 목까지 담요를 두르고, 귀마개를 하고, 머리에는 냄비를 쓰고, 그 냄비 위에 모자를 얹은 채로. 마라 아줌마는 이런 때에도 모자를 벗지 않는다. 고무 개구리를 안고 있었다. 내 개구리. 누구 것도 아니던 그 개구리. 마라 아줌마가 왜 그걸 원했는지 이제 안다.

"벌써 지나갔어?" 마라 아줌마가 물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침대 밑에서 말하던 내 목소리였다.

"한참 전에요." 훌리타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담요, 귀마개, 냄비.

아줌마는 그 택배를 스물세 번 배달했다. 폭풍이 칠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날 아침 아줌마는 이미 계산대 끝에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 담요, 귀마개, 냄비. 나는 그걸 보았고, 택배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할 일? 그래. —J.

나는 플로라 아줌마의 전갈을 전했다.

마라 아줌마는 어느 플로라냐고도, 무슨 때냐고도, 무슨 때가 됐다는 거냐고도 묻지 않았다. 냄비를 눈썹까지 푹 눌러썼다. 냄비를 쓴 채 얼굴이 빨개지는 것과 가장 비슷한 일이었고, 그 밑에서 이제는 잘 안 쓰는 미소를 본 것 같았다. 계산대 뒤에 걸린, 젊은 마녀 둘이 찍힌 오래된 사진 속의 미소. 스티커가 붙은 그 사진. 마라 아줌마와 플로라 아줌마는 서로 아는 사이다. 스물세 번의 배달 때문만은 아니다. 무슨 사이인지는 모른다. 다음 토요일을 위한 질문 목록에 넣는다. 그 목록은 벌써 두 번째 쪽이다.

"저도 천둥이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처음에는, 화단 밑에서, 폭풍 한 번이 통째로 걸렸다. 두 번째는 저절로 나왔다, 딸꾹질처럼.

마라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담요를 들어 올렸다.

나는 체를 썼다. 플로라 아줌마네 문에서부터 내려놓지 않은 체를. 그러라고 준 거였다. 그리고 마라 아줌마와 함께 계산대 밑으로 들어갔다.

딱 맞았다.

마라 아줌마에게는 냄비가, 나에게는 체가 있었다. 아줌마는 계속 개구리를 안고 있었다. 계산대 위로는 훌리타와 토뇨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마라 아줌마가 괜찮아질 때까지, 아니면 내 발이 저릴 때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 같은 말이다. 마라 아줌마는 나와서 불을 켰고, 훌리타는 라벨을 계산대 위 도장 옆에 놓았다. '반송' 도장 스물세 개, 그리고 그 위에 '배달 완료 · 플로라'. 마라 아줌마는 그걸 만지지 않고 오랫동안 읽었다. 1번 택배의 것을 읽었을 때처럼. 그러고는 이제 담요가 없는 계산대 끝을 바라보더니 상자를 하나 가지러 갔다.

아줌마는 토뇨에게 배달 상자를 뒤집어 의자들 옆에 놓아 주었다.

"당분간은." 아줌마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의 '당분간'은 꽤 오래갈 수도 있다.

토뇨는 앉았다. 상자가 너무 낮아서 무릎이 턱에 닿을 뻔했다. 토뇨는 그대로 있었다.

훌리타가 초록색 매직펜을 건넸다.

가방의 '폭풍이 치면 제외' 뒤에 토뇨는 두 단어를 덧붙였다:

'고양이도 제외'.



이제 작은 글씨가 진실을 말하네. —J.

그러고 나서 훌리타는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 파란 의자에 올라가 팻말의 19에 줄을 긋고 그 옆에 18을 더 크게 썼다. 그것도 줄을 긋고 싶다는 듯이.

내 계획을 고쳤다. 천둥에 대한 계획:

1. 코끼리 세기.
2. 누군가와 함께.
3. 딸꾹질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아무것의 사냥꾼이라고도 하지 마. —J.

문을 닫으려는데 방울 소리가 났다.

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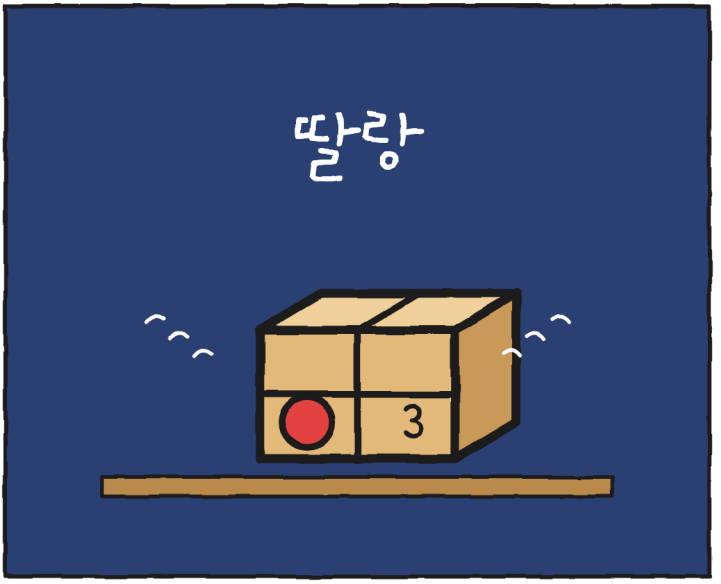
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돌아온 택배 선반에서 났다. 빈자리 두 곳 옆의 3번 택배였다.

라벨을 읽으러 다가갔다.

3번 · 우리 토뇨에게.

토뇨는 헬멧처럼 빨개졌다.





토요에게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지? —J.

불가능 배달 · 3

(곧 나옵니다)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이 책에는 여섯 가지 사이즈가 있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쪽마다 들려주는데, 갈수록 이야기가 더 섬세해진다. XL은 소설이다. 같은 이야기에, 구니가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담을 자리가 있다.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XXS, pre-A1 · XS, A1 · S, A2 · M, B1 · L, B2 · XL, B2–C1.

각자 자기 사이즈로. 폭풍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L 사이즈의 활동 포함)

진짜 폭풍이 칠 때 해야 할 일

1.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 번개가 벌써 너에게 닿을 수 있어.
2. 어른과 함께 집 안에 있어. 창문, 문, 유리에서 멀리 떨어져. 온실도, 다리도, 나무도, 물도 안 돼.
3.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이 지날 때까지 나가지 마.
4. 코끼리를 세면 번개가 가까운 곳에 쳤는지 먼 곳에 쳤는지 알 수 있고 마음이 가라앉아. 하지만 언제 나가도 되는지는 알 수 없어.

네 폭풍을 세어 봐

집 안에서: 번개와 천둥 사이에 코끼리를 세어 봐.

번개	코끼리	킬로미터 (3마리에 1)	더 가까울까, 더 멀까?
1	15	5	—
2	9	3	더 가까이

천둥이 칠 때 딸꾹질이 나? 코끼리를 세어 봐.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세어 봐. —J.